

2016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연구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 류영철 책임연구원 -

연구진

책임 연구자	류영철	미래교육부
공동 연구자	전홍표	미래교육부

- 목 차 -

<요약>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2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 연구 고찰 3
- 2. 유보통합의 현황과 사례 4
- 3. 경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8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대상 10
- 2. 연구 내용 및 자료 수집·분석 12

IV. 연구 결과

- 1. 설문을 활용한 유보 통합의 인식 분석 16
- 2. 질적 연구를 활용한 현장 전문가의 유보통합 의견 분석 75

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89
- 2. 제언 93

* 참고문헌 94

* 부 록 97

- 표 목차 -

<표 Ⅲ-1> 개별 대상자	10
<표 Ⅲ-2> 설문 대상자 (총 754명)	11
<표 Ⅲ-3> 개별 인터뷰 질문내용 영역 구분	13
<표 Ⅳ-1> 전체 대상(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의미 분석	16
<표 Ⅳ-2> 경력과 유보통합 의미 분석	17
<표 Ⅳ-3> 근무 형태와 유보통합 의미 분석	18
<표 Ⅳ-4> 유보통합 필요성	18
<표 Ⅳ-5> 기술통계량	19
<표 Ⅳ-6> 유보통합 필요 이유 분석	19
<표 Ⅳ-7> 경력과 유보통합 필요 이유 분석	20
<표 Ⅳ-8> 근무형태와 유보통합 필요 이유 분석	21
<표 Ⅳ-9> 유보통합 불필요 이유(불필요 답변자)	22
<표 Ⅳ-10> 연령과 통합 불필요 이유 분석	22
<표 Ⅳ-11> 경력과 통합 불필요 이유 분석	23
<표 Ⅳ-12> 근무형태와 통합 불필요 이유 분석	24
<표 Ⅳ-13> 통합 시 관장부처	24
<표 Ⅳ-14> 연령에 따른 관장부처에 대한 의견 분석	25
<표 Ⅳ-15> 전공과 관장부처 분석	25
<표 Ⅳ-16> 경력과 통합부처 의견 분석	26
<표 Ⅳ-17> 근무형태와 통합 부처 의견 분석	26
<표 Ⅳ-18> 통합 시 연령범위 의견 분석	27
<표 Ⅳ-19> 연령과 연령범위 분석	27
<표 Ⅳ-20> 전공과 연령범위 분석	28
<표 Ⅳ-21> 경력과 연령범위 분석	28
<표 Ⅳ-22> 근무형태와 연령범위 분석	29
<표 Ⅳ-23> 통합 시 연령별 분리 방법	29
<표 Ⅳ-24> 경력과 연령별 분리방법 분석	30
<표 Ⅳ-25> 근무형태와 분리방법 분석	30
<표 Ⅳ-26> 통합 시 연령에 따른 기관 분리 방법	31

<표 IV-27> 연령과 기관분리 분석	31
<표 IV-28> 전공과 기관분리 분석	32
<표 IV-29> 경력과 기관분리 분석	32
<표 IV-30> 근무와 기관분리 분석	33
<표 IV-31> 통합 시 기관명칭	33
<표 IV-32> 경력과 통합기관명 분석	34
<표 IV-33> 전공과 통합기관명 분석	34
<표 IV-34> 근무와 통합기관명 분석	35
<표 IV-35> 통합 시 우선 통합 사항	35
<표 IV-36> 연령과 우선통합사항 분석	36
<표 IV-37> 전공과 우선통합사항 분석	36
<표 IV-38> 경력과 우선통합사항 분석	37
<표 IV-39> 근무형태와 우선통합사항 분석	37
<표 IV-40> 통합 시 방향	38
<표 IV-41> 연령과 통합방향 분석	38
<표 IV-42> 전공과 통합방향 분석	39
<표 IV-43> 경력과 통합방향 분석	40
<표 IV-44> 근무형태와 통합방향 분석	41
<표 IV-45> 통합 시 교사의 자격기준	41
<표 IV-46> 연령과 자격기준 분석	42
<표 IV-47> 전공과 자격기준 분석	42
<표 IV-48> 경력과 자격기준 분석	43
<표 IV-49> 근무형태와 자격기준 분석	44
<표 IV-50> 통합 시 교사 자격의 구분	44
<표 IV-51> 연령과 자격 구분 분석	45
<표 IV-52> 전공과 자격구분 분석	45
<표 IV-53> 경력과 자격구분 분석	46
<표 IV-54> 근무와 자격구분 분석	46
<표 IV-55> 통합 시 교사 자격체계 및 직위	47
<표 IV-56> 경력과 교사직위 분석	47
<표 IV-57> 근무와 교사직위 분석	48
<표 IV-58> 통합 시 교사 자격 취득방법	49
<표 IV-59> 연령과 교사자격취득방법 분석	49

<표 IV-60> 전공과 교사자격취득방법 분석	50
<표 IV-61> 경력과 교사자격취득방법 분석	50
<표 IV-62> 근무와 교사자격취득방법 분석	51
<표 IV-63> 통합 시 교사 양성기관	51
<표 IV-64> 연령과 교사 양성기관 분석	52
<표 IV-65> 전공과 교사 양성기관 분석	53
<표 IV-66> 경력과 교사 양성기관 분석	53
<표 IV-67> 근무와 교사 양성기관 분석	54
<표 IV-68> 통합 시 현행 보육교사 3급 자격과 담당 업무	55
<표 IV-69> 경력과 보육 3급 자격 분석	55
<표 IV-70> 통합 시 교사의 처우	56
<표 IV-71> 연령과 교사 처우 분석	56
<표 IV-72> 경력과 교사 처우 분석	57
<표 IV-73> 근무와 교사 처우 분석	57
<표 IV-74> 통합 시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유형	58
<표 IV-75> 전공과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 분석	58
<표 IV-76> 경력과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 분석	59
<표 IV-77> 근무와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 분석	59
<표 IV-78>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시 기존 기관의 전환 기준	60
<표 IV-79> 연령과 전환기준 분석	60
<표 IV-80> 전공과 전환기준 분석	61
<표 IV-81> 경력과 전환기준 분석	61
<표 IV-82> 근무와 전환기준 분석	62
<표 IV-83> 통합 시 정규교육과 보육의 적정 시간	62
<표 IV-84> 연령과 적정 시간 분석	63
<표 IV-85> 전공과 적정 시간 분석	63
<표 IV-86> 경력과 적정 시간 분석	64
<표 IV-87> 근무와 적정 시간 분석	65
<표 IV-88> 통합 시 교육 및 보육비용의 부담	65
<표 IV-89> 연령과 비용부담 분석	66
<표 IV-90> 경력과 비용부담 분석	66
<표 IV-91> 근무와 비용부담 분석	67
<표 IV-92> 통합 시 정부의 우선 지원 사항	67

<표 IV-93> 경력과 우선 지원 사항 분석	68
<표 IV-94> 근무와 우선 지원 사항 분석	68
<표 IV-95> 통합 시 가장 중요한 점검 부분	69
<표 IV-96> 연령과 점검사항 분석	69
<표 IV-97> 경력과 점검사항 분석	70
<표 IV-98> 근무와 점검사항 분석	70
<표 IV-99> 국가의 의무 교육화 필요성	71
<표 IV-100> 기술통계량	71
<표 IV-101> 의무교육 연령범위	71
<표 IV-102> 경력과 의무교육 연령범위 분석	72
<표 IV-103> 근무와 의무교육 연령범위 분석	72
<표 IV-104> 신뢰도 높은 기관	73
<표 IV-105> 연령과 신뢰도 높은 기관 분석	73
<표 IV-106> 전공과 신뢰도 높은 기관 분석	74
<표 IV-107> 경력과 신뢰도 높은 기관 분석	74
<표 IV-108> 근무와 신뢰도 높은 기관 분석	75

<연구 요약>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은 첫째, 우리나라의 영유아(만0~5세) 보육 시스템은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따라 만3~5세 유아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 영유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각각 그 대상연령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원화체제로 인하여 영아와 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은 형제를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며, 동일 대상에 대한 운영에서도 영유아 1인당 교육비 차이를 비롯한 갖가지 갈등과 불평등을 야기·심화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등재인 유치원과 열등재이면서 기펜재인 어린이집의 상대적 불평등과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보통합은 유아 측면에서는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격차 해소, 발달적 연계성 확보, 학부모 측면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이용의 편의성,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부모의 비용 부담의 격차 해소와 비용 지불 창구의 일원화, 교원측면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균질성 확보, 지원체계의 일원화, 양성체계의 일원화, 운영자측면에서는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지역 내 수요에 따른 효과적 배치, 운영기준의 일원화, 관리 부처의 일원화, 관리체계의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정치적 목적 보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연구로서 개별 인터뷰 방법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영·유아 현장 전문가 인식과 양적연구로서 경남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유보통합에 대해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통합의 필요성, 행정·인적·재정·시설의 통합, 누리과정의 심층적 의미탐색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고찰

유보통합은 1996년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정책개혁안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1997년에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체제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 행정, 교사자격, 교육조건, 교육과정 통합 분과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고민경·권건일, 2007)되었다. 이일주(1999)는 ‘한국 유아교육 일원화 체제 모형 탐색’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일원화 체제 모형으로 1단계 유아-보육간 상호 개방 단계, 2단계 연령 구분 일원화(영어: 보건복지부, 유아: 교육부)단계, 3단계 일원화 확립 단계 등 크게 3단계의 통합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법령을 통합하여 관할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만 0~2세는 영아학교에서 영아보호, 교육기능 수행, 만3~5세는 유아학교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덕난(2008)은 ‘미래지향적 영유아 교육정책의 입법영향 평가’에서 만 0~5세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제의 제·개정 방향으로 만0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유희정·이미화·장명림·김은설·김은영·송신영(2008)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을 일원화 하는 방안으로 ①만 0~5세 연령 전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 ②연령에 따라 기관과 시설을 구분한 연령별 일원화 방안, ③이원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만 0~5세 연령 전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각 부문별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만0~5세 영유아 기관·시설 전체를 일원화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시설 측면의 실천방안으로 교사면적이나 사용 층, 실외놀이터 기준 등의 상향조정 등 시설·설비 기준이 조절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2. 유보통합의 현황과 사례

가. 국내 유보통합의 현황

1996년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정책개혁안중 하나가 유보통합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법 추진단부터 2004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내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체제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 행정, 교사자격, 교육조건, 교육과정 통합 분과설치이었다(고민경·권건일, 2007). 본 연구는 현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적 방향 위주로 전개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보통합의 현황은 2014년 2월 14일 공식 출범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했다.

첫째,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 내용을 보면, 2014년 2월 14일 공식 출범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불편은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4.02.14.).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이 기존의 통합시도와 다른 점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다루고, 기존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처 통합 문제는 최종단계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013년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정보공시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공통 평가항목과 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과 같이 통합 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및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등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등 규제환경 정비를 통한 본격적인 통합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어서 2016년부터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 유보통합을 마무리하는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유보체계 개선안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주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기존의 유치원 2개(국공립/사립), 어린이집 7개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을 크게 3가지 유형(국공립, 사립/민간/직장·기타, 가정)으로 구분한다. (나)관리부처, 재원, 법률 통합, 관리·감독기관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를 정비한다. (다)종합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공시로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지원을 서비스한다.

셋째,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을 살펴보면, ①기본방향은 취원 연령 차이로 자녀가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공급부족 지역의 영아보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②부처 통합 이전에는 시범사업(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법 개정 전 학부모 편의를 위해 국공립·병설유치원-어린이집 병행운영 시설 9개소 설치·시범운영(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과 연계)을 한다. 부처 통합 이후에는 1단계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일부 적용, 2단계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전체 적용 및 운영평가를 통해 적용지역 확대 필요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총 445개 읍면동(29%), 어린이집 미설치·유치원 설치 지역 영아 수 12,598명('14.12월 기준), 1단계 사업 평가를 통해 학부모 수요 및 보육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③허용 절차·요건을 살펴보면, 유치원 신청 접수 후 관할청이 (가)시설·정원 요건(현재 유치원 정원 내에서 0~2세 취원 허용) (나)지방교육·보육정책위(가칭) 의견 수렴 (다)보육 수요·공급 고려 허용 여부 결정한다. (라)운영기준을 살펴보면, 통합기준 마련 이전은 유치원·보육교사 동시 소지자 우대(보육교사 2급 배치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표준보육과정 적용한다. 통합기준 마련 이후는 통합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나. 해외의 유보통합 사례

OECD 회원국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효율성 및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유보통합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OECD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5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2006) 그 내용은 ①정부에서 조정하여 정책 기구 구성 ②이원화 된 부처를 단일주관 부처로 통합 ③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 채택 ④지역사회 내에서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및 전문가와 부모간의 연계 강화 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가 주된 것이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오래전에 유보통합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과 최근 우리와 가장 비슷한 실정에서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되었던 스웨덴은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삶의 처음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들이 직업 또는 학업과 자녀양육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신동주, 2006). 스웨덴은 1997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부처를 이관하였는데, 이는 영·유아 서비스에 있어서 국가 강조점을 보육에서 교육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위해 만 6세 유아를 위하여 만 6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반을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설치하여 다닐 수 있게 하였고 부모가 원하는 경우 만 6세 유아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을 허용하였다. 2003년에는 만4세와 5세 유아에게 보편적인 무상 유아교육을 연간 525시간 제공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만 4~5세 유아들은 적어도 하루 3시간 동안 무료로 유아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박창현 외, 2010). 스웨덴의 통합 시기는 취업모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의 사회적 요구 해소와 빈곤층 유아에 대한 국가 관심은 이미 복지국가 단계였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초석을 위해서는 육아에 관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및 보편적 복지수준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관계 속에서의 상호협력을 강조하며 단일부처 일원화 통합 사례는 통합에 대한 협력과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병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일본의 유보통합과정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①일본은 오랫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였으며, 중앙부처도 교육부와 복지부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②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의 보육기능 강화와 보육소의 교육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유보통합을 논의했다. 이러한 이원화 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인정어린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유보통합정책을 변경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이혜원, 2006).

일본 정부는 유치원과 보육소 두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1994년 ‘향후 유아교육 지원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라는 엔젤플랜을 발표하여 육아와 취업양립을 위한 지원 방안, 모자보건 의료 체제의 정비 방안, 육아로 인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강현구·이순형, 2014). 2006년에는 인정어린이원이라는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학년 전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 보육간의 긍정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이성한, 2014). 하지만 인정어린이원은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유치원과 보육소로 정원이 구분되어있어서 서로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분리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치원과 보육소 양쪽의 시설 인가가 필요하고 보조금 신청이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이중행정의 폐해가 나타났다(이성한, 2014).

이상의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통합 논의는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에 비해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급박성이 보이며, 또한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통합의 내용과 수준, 정부 재정지원 등에 대한 다양하고 공개적인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 일부의 전문가 집단과 행정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접 영·유아 현장 전문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유보통합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과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가. 질적 연구 대상

경남지역에서 인터뷰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본의 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 수집방법 중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김현철, 2007)하여 총 10명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실시했다. 유보통합이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다소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현장 전문가 소개를 통한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했다. 사전에 전화를 이용해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여 허락을 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공립 기관은 내방 전 공문을 보낸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① 영아교육 현장 전문가(어린이집) 5명 ②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유치원) 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해당 지역과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나. 설문 대상자

설문대상자는 연령대는 20대가 23.2%, 30대가 27.4%, 40대가 28.9%, 50대가 19.1%, 60대 이상이 1.3%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미만은 26.0%, 10년 미만은 23.3%, 15년 미만이 15.9%, 20년 미만이 8.9%, 20년 이상은 19.7%, 없음(학부모)은 6.3%로 나타났다. 자녀사항은 미혼이 33.8%, 기혼 유자녀가 62.0%, 기혼 무자녀가 4.1%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국공립유치원이 18.0%, 사립유치원이 34.5%, 국공립 어린이집이 11.5%, 사립어린이집이 23.6%, 학부모가 12.3%로 나타났다. 직위와 신분은 유치원 원장이 5.6%, 유치원 교사가 45.5%, 유치원 학부모가 8.8%, 어린이집 원장이 17.7%, 어린이집 교사가 17.7%, 어린이집 학부모가 4.8%로 나타났다. 지역구분은 도시지역이 67.3%, 읍면지역이 32.7%로 나타났다.

다. 질적 연구 질문 영역 내용

본 연구의 질문 영역과 질문 내용 구성을 위해 연구자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델 구축 연구(지성애 외, 2015)의 기본 요소를 주로 참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회의 검토(안면 타당도)를 바탕으로 5가지 영역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질문 문항을 설계했다. 전문가협회는 C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M대 아동보육과 교수, D대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M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삼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하여 부가되는 질문은 연관하여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을 위한 5가지 영역은 ①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 ② 행정통합 ③ 인적통합 ④ 재정·시설통합 ⑤ 누리과정 및 의무교육화로 구분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질적 연구

자료 수집은 영·유아 현장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개별 인터뷰 내용을 모두 녹취했다. 인터뷰는 ‘열기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회당 2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질의 내용은 사전에 5개 영역별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구조화 설문의 방법을 통해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녹취한 모든 내용은 전사의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전사한 모든 내용을 핵심 키워드별로 코딩하고, 코딩한 내용을 핵심 주제별로 유목화 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및 해석했다.

<표> 인터뷰 질문내용 영역 구분

순	영역	질문내용
1	유보통합 의미와 필요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유보통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아측면에서 유보통합은 어떤 의미와 필요성을 가질까요? 일부 기관의 유보통합 반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령이 겹치는 부분적(만3~5세) 유보통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만약 유보통합이 된다면, 유보통합의 기준은 무엇이 좋을까요? 유보통합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행정통합	관리부처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령별 통합과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유보통합에 어떻게 적용가능한가요? 기관의 평가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 및 이용시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	인적통합	교사의 자격 취득방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사이버 학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육교사교육원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재정· 시설통합	재무회계와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회계 및 시설기준 일원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용 부담 구분과 부담 주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통합 후 시설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	누리과정 및 의무교육화	전과 비교하여 누리과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방과 후 특성화에 대한 가격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과 후 특성화에 대한 규제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유아의무교육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 5세의 의무 교육화(pre-schoo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설문 내용 및 분석 방법

1) 설문 내용

설문내용은 다음의 3가지를 주요 범주로 유목화 했다. 첫째, 유보통합의 의미와 (불)필요성 이유이다. 이 범주의 구체적인 사항은 유보통합의 실제적 의미에 대한 항목과 필요와 불필요 정도에 따라 필요한 이유와 불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물어보는

내용이다. 둘째, 통합 시 정책 방향이다. 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부처, 통합 연령범위, 기관 분리, 기관의 명칭, 통합 우선사항, 통합의 방향성, 교사 자격기준, 교사 자격구분, 교사 자격체계 및 직위, 교사자격 취득 방법, 교사 양성기관, 보육교사 3급 자격, 교사처우, 기관 설립유형, 통합기관 기준, 교육 시간, 비용 부담, 우선 지원 사항, 중요 점검사항이다.

셋째, 누리과정과 의무교육화 필요성 부분이다. 이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의무교육화의 필요성, 의무교육의 연령범위 등이다.

<표> 설문 내용 영역 구분

순	영역	질문내용
1	유보통합 의미와 필요성	유보통합의 의미와 항목 / 필요성 및 이유 / 불필요성 및 이유
2	유보통합 정책방향	관장부처 / 통합 연령범위 / 기관 분리 / 기관의 명칭 / 통합 우선사항 / 통합의 방향성 / 교사 자격기준 / 교사 자격구분 / 교사 자격체계 및 직위 / 교사자격 취득 방법 / 교사 양성기관 / 보육교사 3급 자격 / 교사처우 / 기관 설립유형 / 통합기관 기준 / 교육 시간/ 비용 부담 / 우선 지원 사항 / 중요 점검사항
3	누리과정 및 의무교육화	국가의 의무교육화의 필요성 / 의무교육의 연령범위

2) 설문 수집

설문 수집은 세 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첫째, 온라인(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했다. 온라인 설문전문 프로그램인「서베이 몽키」를 활용하여 설문을 수집했다.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여 답변하고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수집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둘째, 설문 원 파일을 해당자가 다룬 받고 작성(또는 스캔) 후 본 연구원의 이메일을 통해 수집했다. 셋째, 일부 기관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우편으로 되받는 방법을 취했다.

설문 구성은 객관식 선택, 복수응답, 기타 주관식 의견 등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대상은 경남 도내 전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교원(원장, 원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기간은 2016.7.11.(월) ~ 7.20(수), 10일간 실시했다. 설문인원의 총 설문인원수는 912명이었고, 유효 인원수는 754명으로 유효투표율은 82.7%로 나타났다.

3) 설문 분석 방법

통계 프로그램인 IBM SPSS 2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교차분석 등을 실시했다. 통계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유의미한 분석이 나온 경우에만 연구결과에 반영하여 기술했다.

IV. 연구 결과

1. (양적연구) 설문 내용 분석

첫째,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긍정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보통합의 의미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통합 후 정책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 시 관장부처는 교육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연령범위는 만3~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연령별 분리방법은 ‘만 0~2세와 만 3~5세 분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연령에 따른 기관 분리방법은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기관명칭은 ‘영아학교(만 0~2세)와 유아학교(만 3~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시 우선 통합 사항은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방향은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교사의 자격기준은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교사 자격의 구분은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교사 자격체계 및 직위는 정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과 같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교사 자격 취득방법은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교사 양성기관은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의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현행 보육교사 3급 자격과 담당 직무는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교사의 처우는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유형은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시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기준은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정규교육과 보육의 적정 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교육 및 보육비용의 부담은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시 정부의 우선 지원 사항은 인건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 시 가장 중요한 점검 부분은 교육과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무 교육화와 누리과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의무 교육화 필요성은 긍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의무교육 연령범위는 만3~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1학년 한글해득과 누리과정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초등 1학년 한글교육 강화'로 교육과정 개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질적연구) 현장 전문가의 인식 분석

첫째, 관리의 일원화 범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 후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해야 하고, 평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방안을 절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방과 후 특별과정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 질과 처우의 균일화 범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 과정은 폐지하고 방송통신대는 유지하며, 보육교사교육원은 승급교육기관으로만 역할을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원화된 통합 자격이 필요하고, 과정 학과제로 통일하고 이에 따른 자격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처우는 유치원 수준으로 균일하게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력 및 학력에 따른 차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누리과정 범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의 균질한 구현은 결국 출발점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누리과정으로 결과적·보상적 평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특성화 수업은 학습이 아니라 놀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침과 상한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논의 및 정책 제언

1. 논의

가. 관리(행정, 평가, 재정)의 일원화

첫째, 통합 후 관리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평생교육의 수직적 통합 관점에서 아동의 교육평등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보건복지부 보다는 교육부가 적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영유아기의 발달 및 교육을 전 생애 발달과 교육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유아기관의 학제화 및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지성애 외, 2015)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관리부처의 교육부로의 통합은 다른 선행 연구(이일주, 1999; 이덕난, 2008; 지성애 외, 2015)와도 일치했다.

둘째, 평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방안을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는 장학의 유치원의 방식과 인증의 어린이집 방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치원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치원의 교육과정 중심 평가에 안전관리, 건강은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설치기준에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골라지는 편이고, 평가인증이 아니라도 식약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진단을 다양한 각도로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평가를 기준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시 재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새로운 평가제도는 재정지원을 차등화(류민정, 2014)하는 방안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재정 부담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방과 후 특별과정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유보통합 모델연구(지성애 외, 2015)와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용의 국가 부담으로 재무 회계 및 운영의 투명화 제고를 위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통합 후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급한다면, 사립은 모두 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결과 판단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유보통합은 완전통합을 지향하되 부분별로 단계별 통합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실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 교사자격, 평가 등을 통합하고, 법률, 재무회계, 시설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나왔듯이 사립기관은 재무회계와 운영의 자율성 침해가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의 진행 방향은 국공립은 국공립끼리, 사립은 사립끼리 묶고, 가정 어린이집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립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연령의 이원화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을 보인다. 우선 유아와 영아를 연령별로 분리(이일주, 1999)하여 유아는 국가가 관리하고 가정 어린이집 등의 영아시설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시설은 기관별로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통합이 필요하다. 시설 통합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차지하고자라도 재원확보 등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의 마련이 촉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순차적인 시설자격 요건을 강화 또는 조정(유희정 외, 2008)할 필요가 있는데 유치원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순차적으로 시설 요건을 갖추도록 기회를 열어줄 필요는 있으나 보육성격이 강한 0세부터 2세 영아전담 시설로 남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0세부터 5세까지 모두 통합하는 것은 실효성과 아동발달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0세부터 2세까지는 현행의 보육시스템을 유지토록하고 유보통합은 3세부터 부분통합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 교사 질과 처우의 균일화

첫째, 사이버과정은 폐지하고 방송통신대는 유지하며, 보육교사교육원은 승급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교사 자격증은 보수양성교육후 시험, 또는 국가고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보통합 모델 연구(지성애 외, 2015)와는 내용이 맥락적으로 같음을 확인했다. 보육교사교육원의 역할전환 모색과 국가고시 필요성 제기(이미정, 2013)도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확인했다. 반면에 양성기관으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는 부적절하며,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은 교사연수기관으로,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조교사 양성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김은영 외, 2016)는 연구와는 다소 내용적인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일원화된 통합 자격이 필요하고, 과정 학과제로 통일하고 이에 따른 자격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통합된 교사자격증이 필요하다(김수향 외, 2014; 이미정, 2013)는 연구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격제도는 같아야 한다(김은영 외, 2016)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박은혜·장민영(2014)의 8개국 비교연구를 보면, 유아교육과 보육 교사자격을 완전히 통합한 나라는 노르웨이 한 곳 뿐이다.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핀란드는 부처통합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만큼 자격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격개편과 통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원 처우는 유치원 수준으로 균일하게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경력, 학력에 따른 차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수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통합 자격을 적용하고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 체계를 적용(지성애 외, 2015)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원격대학(사이버),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 등을 통한 자격은 ‘통합교사’ 자격체계의 하위체계로 새로이 구성하여, 자격에 따라 처우와 역할에 분명한 차등을 두자(이미정, 2013)는 연구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이들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교원의 신분적 안정화 정책도 공교육과 공보육 관점을 기반으로 심도 깊은 정책적 연계 고민이 필요하다.

다. 누리과정과 의무교육화

첫째, 누리과정의 균질한 구현은 결국 출발점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누리과정으로 결과적·보상적 평등이 필요하다. 다만,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노력은 계속되어 아이들의 ‘행복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과 후 특성화 수업은 학습이 아니라 놀이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침과 상한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과 후 특성화 수업에 대한 학습의 지양은 한편으론 누리과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따라서 방과 후 특성화 수업은 향후 통합이 된다면 관리부처의 학습지양 정책을 기반으로 한 지침을 규정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 상한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수준 누리과정이 존재하기 이전이라면 취학 전 한글교육은 가정에서 선택할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 누리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중 5세과정은 적어도 취학 준비단계로서 초등 1학년 교육과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누리과정을 이수한 입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취학 이전의 5세 누리과정은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할 것 없이 균질하게 이루어져 학교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학력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만5세는

‘pre-school¹⁾’ 형태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 흡수로 추가되는 예산은 ‘소비세’ 인상(홍금자 외, 2015)의 방법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 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상남도 거제 송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거제 송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농촌형 0~2세 영아전담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연계사업으로 학교 부지 내에 농촌형 영아 전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원아를 모집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학교 안의 장소만 빌려줬을 뿐 진정한 유보통합이라기 보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의 혼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유보통합의 실제적 접목 가능성의 효과성과 만족도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유보통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교육청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동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권미경·이진화·김정민(2014)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6개년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에 따르면 집중협력지역을 선정하여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모델을 운영했으나 기관 운영 협력에서 미흡하며 유치원의 협력 의사는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통합을 위한 방향성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교육 운영 및 기획력에서 전문성 발휘가 용이한 교육청이 주도로 하여 협동 모델을 설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개발된 ‘협력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보통합은 단기적으로 처리해야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영·유아의 교육과 행복을 위한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수요자인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일부의 시각과 비판에 대해 정부와 학계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담론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핀란드 사례를 세종시교육청에서 긍정 검토(세종시교육청, 2016.09.13.보도자료)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영유아(만0~5세) 보육 시스템은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따라 만3~5세 유아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 영유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각각 그 대상연령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원화체계로 인하여 영아와 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은 형제를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며, 동일 대상에 대한 운영에서도 영유아 1인당 교육비 차이를 비롯한 갖가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등재인 유치원과 열등재이면서 기편재인 어린이집의 상대적 불평등과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도 만5세 누리과정 실시, 2013년도 만3~4세 누리과정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양 기관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들은 공통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014년 2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 추진단’을 정식 발족시켰다²⁾.

유보통합이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만 0-5세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부처 및 법적근거의 통합, 행정체계의 통합, 재정의 통합, 서비스 기능의 통합, 시설기준의 통합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의 통합 등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반적인 통합(지성애·홍혜경·이정옥·장명림, 2015)을 의미한다.

유보통합은 유아 측면에서는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격차 해소, 발달적 연계성 확보, 학부모 측면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이용의 편의성,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부모의 비용 부담의 격차 해소와 비용 지불 창구의 일원화, 교원측면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균질성 확보, 지원체계의 일원화, 양성체계의 일원화, 운영자측면에서는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지역 내 수요에 따른

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4.02.14),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공식출범, p6.

효과적 배치, 운영기준의 일원화, 관리 부처의 일원화, 관리체계의 일원화(지성애 외, 2015)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통합관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대상별로 단절적인 설문 분석 연구(김수향·임경심·홍혜경, 2014; 김은영·김길숙·이연주, 2016 등)이고 질적 연구는 문헌연구가 다수(고민경·권건일, 2007; 장영인, 2014; 이정옥, 2015; 박은혜·장민영, 2014; 홍금자·정효정·이혜영, 2015; 이미정, 2013; 류민정, 2014)여서 실질적인 현장분석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로 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 탐색이 미흡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인터뷰 방법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영유아 현장 전문가 인식과 경남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유보통합에 대해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통합의 필요성, 행정·인적·재정·시설의 통합, 누리과정의 심층적 의미탐색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첫째,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경남지역 영·유아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경남지역 영·유아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고찰

유보통합은 1996년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정책개혁안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1997년에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일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체제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 행정, 교사자격, 교육조건, 교육과정 통합 분과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고민경·권건일, 2007)되었다. 이일주(1999)는 ‘한국 유아교육 일원화 체제 모형 탐색’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일원화 체제 모형으로 1단계 유아-보육간 상호 개방 단계, 2단계 연령 구분 일원화(영아: 보건복지부, 유아: 교육부)단계, 3단계 일원화 확립 단계 등 크게 3단계의 통합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법령을 통합하여 관할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만 0~2세는 영아학교에서 영아보호, 교육기능 수행, 만3~5세는 유아학교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덕난(2008)은 ‘미래지향적 영유아 교육정책의 입법영향 평가’에서 만 0~5세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제의 제·개정 방향으로 만0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유희정·이미화·장명림·김은설·김은영·송신영(2008)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을 일원화 하는 방안으로 ①만 0~5세 연령 전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 ②연령에 따라 기관과 시설을 구분한 연령별 일원화 방안, ③이원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만 0~5세 연령 전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각 부문별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만0~5세 영유아 기관·시설 전체를 일원화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시설 측면의 실천방안으로 교사면적이나 사용 층, 실외놀이터 기준 등의 상향조정 등 시설·설비 기준이 조절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³⁾

지성애 외(2015)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델의 기본 요소로서 ①관리부처(교육부), 전달 체계(교육청) 및 지원 체계(현 체제 활용), ②대상 연령(0-5세 기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특성에 따라 대상연령 선택 가능, 단, 가정어린이집은 0-2세만), ③운영 및 이용시간(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이용시간 다양화), ④교육·보육과정 운영

3) 조진일(2014), 초등학교 내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연구, p.24.

및 질 관리(0-2세 표준교육·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연계되는 내용 체계화로 영유아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 ⑤교사 자격, 양성 및 처우(영유아교사 자격 단계는 2급, 1급, 원감, 원장으로 단계화하고, 현행 3급은 보조교사나 시간제교사 역할을 부여한다. 영유아 교사는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4년제 학과제(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등)로 하고 교직이수를 필수로 한다. 방과 후 과정교사 및 시간 연장 교사는 수업연한 2,3년(학과제)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교육원, 개방형 및 사이버대학에서는 보육교사 배출을 금지하도록 한다. 이후 보육교사교육원 및 사이버대학에서의 양성기능을 제한하며, 여기서는 교사 재교육, 시간제 및 방과 후 교사 양성을 담당/ 보수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통합 자격을 적용하고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 체계를 적용 한다. ⑥시설기준: 3-5세, 0-5세 대상 기관은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시설 기준을 공통으로 통합하여 적용하고, 0-2세 대상 기관은 현행 어린이집 기설 기준을 적용 ⑦부모 비용 부담: 3-5세는 8시간 중 5시간의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본시간(주 25시간)으로 설정, 방과 후 과정과 돌봄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각 요소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 연구들은 문헌분석(고민경·권건일, 2007; 장영인, 2014; 이정욱, 2015; 박은혜·장민영, 2014; 홍금자 외, 2015; 이미정, 2013; 류민정, 2014)과 대상별로 단절적인 양적 분석연구(김수향 외, 2014; 김은영 외, 2016 등)가 주를 이루며 대부분 연령과 부처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법령, 유보통합 저항에 대한 심층적 의미탐색, 양성체제의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모색 등의 논의를 위한 심층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질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보통합에 대한 영유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접점인 통합의 필요성, 행정·인적·재정·시설의 통합, 누리과정의 심층적 의미탐색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유보통합의 현황과 사례

가. 국내 유보통합의 현황

1996년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정책개혁안중 하나가 유보통합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법 추진단부터 2004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내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체제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 행정, 교사자격, 교육조건, 교육과정 통합

분과설치이었다(고민경·권건일, 2007). 본 연구는 현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적 방향 위주로 전개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보통합의 현황은 2014년 2월 14일 공식 출범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했다.

첫째,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 내용을 보면, 2014년 2월 14일 공식 출범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불편은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4.02.14.).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이 기존의 통합시도와 다른 점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다루고, 기존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처 통합 문제는 최종단계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013년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⁴⁾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정보공시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공통 평가항목과 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과 같이 통합 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및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등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등 규제환경 정비를 통한 본격적인 통합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어서 2016년부터는 관리부처와 자원 등 유보통합을 마무리하는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⁵⁾

둘째, 유보체계 개선안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주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⁶⁾과 같다. (㉠)기존의 유치원 2개(국공립/사립), 어린이집 7개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을 크게 3가지 유형(국공립, 사립/민간/직장·기타, 가정)으로 구분한다. (㉡)관리부처, 자원, 법률 통합, 관리·감독기관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를 정비한다. (㉢)종합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공시로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지원을 서비스한다.

셋째,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⁷⁾을 살펴보면, ①기본방향은 취원 연령 차이로 자녀가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공급부족 지역의 영아보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②부처 통합 이전에는 시범사업(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법 개정 전 학부모 편의를 위해 국공립·병설유치원-어린이집 병행운영 시설 9개소

4) 2013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

5)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3.12.03), 유보통합, 학부모의견 최대한 반영해 임기 내 완성, p.2.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4.2.14.),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공식 출범, p.7.

7)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5.9.2.), 어린이집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후 단계적실시 신규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설치 의무화, p.5.

설치·시범운영(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과 연계)을 한다. 부처 통합 이후에는 1단계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일부 적용, 2단계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전체 적용 및 운영평가를 통해 적용지역 확대 필요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총 445개 읍면동(29%), 어린이집 미설치·유치원 설치 지역 영아 수 12,598명('14.12월 기준), 1단계 사업 평가를 통해 학부모 수요 및 보육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③허용 절차·요건을 살펴보면, 유치원 신청 접수 후 관할청이 (ㄱ)시설·정원 요건(현재 유치원 정원 내에서 0~2세 취원 허용) (ㄴ)지방교육·보육정책위(가칭) 의견 수렴 (ㄷ)보육 수요·공급 고려 허용 여부 결정한다. (ㄹ)운영기준을 살펴보면, 통합기준 마련 이전은 유치원·보육교사 동시 소지자 우대(보육교사 2급 배치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표준보육과정 적용한다. 통합기준 마련 이후는 통합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나. 해외의 유보통합 사례

OECD 회원국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효율성 및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유보통합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OECD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5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2006) 그 내용은 ①정부에서 조정하여 정책 기구 구성 ②이원화 된 부처를 단일주관 부처로 통합 ③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 채택 ④지역사회 내에서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및 전문가와 부모간의 연계 강화 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가 주된 것이다.

외국사례에 관한 기존연구는 몇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데, 단일국가 사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일본(김세곤, 2006; 홍금자 외, 2015 등)이 가장 많고, 스웨덴(박창현·박선영·김영주·윤경옥, 2010; 정선아, 2007 등), 뉴질랜드(김은설, 2011 등), 이외에 여러 나라에 대한 소개나 비교연구(김은설·조혜주·이보라, 2011; 박은혜·장민영, 2014 등)가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오래전에 유보통합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과 최근 우리와 가장 비슷한 실정에서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되었던 스웨덴은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삶의 처음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들이 직업 또는 학업과 자녀양육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신동주, 2006). 스웨덴은 1997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부처를 이관하였는데, 이는 영·유아 서비스에 있어서 국가 강조점을 보육에서 교육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령 전 유아학교학급(pre-school class)설치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체제 및 기간을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위해 만 6세 유아를

위하여 만 6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설치하여 다닐 수 있게 하였고 부모가 원하는 경우 만 6세 유아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을 허용하였다. 2003년에는 만4세와 5세 유아에게 보편적인 무상 유아교육을 연간 525시간 제공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만 4~5세 유아들은 적어도 하루 3시간 동안 무료로 유아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박창현 외, 2010). 스웨덴의 통합 시기는 취업모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의 사회적 요구 해소와 빈곤층 유아에 대한 국가 관심은 이미 복지국가 단계였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초석을 위해서는 육아에 관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및 보편적 복지수준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관계 속에서의 상호협력을 강조하며 단일부처 일원화 통합 사례는 통합에 대한 협력과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병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일본의 유보통합과정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①일본은 오랫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였으며, 중앙부처도 교육부와 복지부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②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의 보육기능 강화와 보육소의 교육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유보통합을 논의했다. 이러한 이원화 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인정어린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유보통합정책을 변경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이혜원, 2006).

일본 정부는 유치원과 보육소 두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1994년 ‘향후 유아교육 지원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라는 엔젤플랜을 발표하여 육아와 취업양립을 위한 지원 방안, 모자보건 의료 체제의 정비 방안, 육아로 인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강현구·이순형, 2014). 2006년에는 인정어린이원이라는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학년 전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 보육간의 긍정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이성한, 2014). 하지만 인정어린이원은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유치원과 보육소로 정원이 구분되어있어서 서로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분리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치원과 보육소 양쪽의 시설 인가가 필요하고 보조금 신청이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이중행정의 폐해가 나타났다(이성한, 2014).

이상의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의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급박성이 보이며, 또한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통합의 내용과 수준, 정부 재정지원 등에 대한 다양하고 공개적인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 일부의 전문가 집단과 행정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접 영·유아 현장 전문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유보통합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과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3. 경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가. 경남의 유치원 현황 (2016년 9월 기준, 휴원 포함)

경남지역의 공립 및 사립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은 60.5%로 나타나 사립 39.5%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설유치원은 2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과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이 60.6%로 나타나 사립의 39.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은 99.5%, 사립은 98.9%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립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공립 및 사립 유치원 현황

구분	원 수	학 급 수		특수학급			교 원 수								
		일반	특 수	학 급	원 아	교사	원 장	원 감	교사 (일반)	방과 후과 정 전담	교사 (특수)	계	기간제	파 견	휴 직
공립	415	692	37	37	144	교 20 기 17	24	42	696	81	20	797	.	.	.
사립	271	1,738	259	67	2,512			2,838			
계	686	2,430	37	37	144	교 20 기 17	283	109	3,208			3,600			

2) 단설 유치원 현황

원 수	학 급 수(특19학급 제외)					교 원 수				일반직 (행정·조무사·무)
	3세	4세	5세	혼합반	계	원장	원감	교사	계	
24	38	47	59	2	146	24	24			

3) 방과 후 과정 운영 현황

구 분	운영원수	학급수	원 아 수
공립	413	649	10,975
사립	268	1,368	27,746
합계	681	2,017	38,721

나. 시·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및 증가율 현황(2015년 12월 기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비율은 서울(40.1%)과 인천(35.9%)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경남(4.6%)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서울(14.0%)이 가장 높았다. 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남(4.1%)은 한 자리수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지역 어린이집 인증평가가 전국 최하위권(인증률 68.4%)⁸⁾을 맴돌아 교육지원 등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다양한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순위	국공립어린이집증가율 (2011-2015년)	국공립어린이집비율 (2015년 12월 기준)
1	서울(40.1)	서울(14.0)
2	인천(35.9)	부산(8.2)
3	전남(26.4)	전남(7.4)
4	제주(23.8)	강원(7.1)
5	대구(21.1)	경북(6.3)
6	경기(18.5)	인천(6.1)
7	충남(16.1)	충북(4.7)
8	충북(13.7)	경기(4.7)
9	부산(13.4)	제주(4.5)
10	경북(12.6)	경남(4.1)
11	전북(12.2)	충남(3.6)
12	강원(11.5)	울산(3.5)
13	광주(6.7)	전북(3.4)
14	울산(6.5)	대구(3.0)
15	경남(4.6)	광주(2.5)
16	대전(3.4)	대전(1.8)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교육통계[세종제외], 2015.12월 기준, 한겨레.2016.5.19.보도)

8) 경남지역 평가인증률 68.4%, 서울 80.0%, 전북 89.9%로 나타나, 전국 17개 광역자치체중 16위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준공영제 운영, 공보육화 필요. (경남신문 2016. 5.27 사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가. 질적 연구 대상

인터뷰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본의 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 수집방법 중 할당표집법(비비례 할당표집법)과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김현철, 2007)하여 총 10명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10회를 실시했다. 유보통합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다소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 소개를 통한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했다. 사전에 전화를 이용해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여 허락을 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공립 기관은 내방 전 공문을 보낸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① 영아교육 현장 전문가(어린이집) 5명 ②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유치원) 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해당 지역과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표 Ⅲ-1> 개별 인터뷰 대상자

순	구분	인터뷰 날짜	기관 및 직위	경력	특성
1	E	2016. 06. 01	G어린이집 원장	25년	C대 사회보육원 겸임 교수 유치원 원장 자격 보유
2	F	2016. 06. 01	G어린이집 교사	10년	-
3	G	2016. 06. 03	Y어린이집 원장	21년	-
4	H	2016. 06. 03	N어린이집 원장	23년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일본 유학경험(디플로마)
5	I	2016. 06. 08	S어린이집 원장	31년	지역 어린이집 부회장
6	J	2016. 06. 10	HD유치원 원장	21년	C대 유아교육학과 겸임 교수
7	K	2016. 06. 14	HD유치원 교사	10년	-
8	L	2016. 06. 17	H유치원 원장	22년	-
9	M	2016. 06. 20	HR유치원 원장	22년	前지역 유치원연합회 회장
10	N	2016. 06. 21	GB유치원 원장	21년	-

나. 설문 대상

설문대상자는 연령대는 20대가 23.2%, 30대가 27.4%, 40대가 28.9%, 50대가 19.1%, 60대 이상이 1.3%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미만은 26.0%, 10년 미만은 23.3%, 15년 미만이 15.9%, 20년 미만이 8.9%, 20년 이상은 19.7%, 없음(학부모)은 6.3%로 나타났다. 자녀사항은 미혼이 33.8%, 기혼 유자녀가 62.0%, 기혼 무자녀가 4.1%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국공립유치원이 18.0%, 사립유치원이 34.5%, 국공립어린이집이 11.5%, 사립어린이집이 23.6%, 학부모가 12.3%로 나타났다. 직위와 신분은 유치원 원장이 5.6%, 유치원 교사가 45.5%, 유치원 학부모가 8.8%, 어린이집 원장이 17.7%, 어린이집 교사가 17.7%, 어린이집 학부모가 4.8%로 나타났다. 지역구분은 도시지역이 67.3%, 읍면지역이 32.7%로 나타났다.

<표 Ⅲ-2> 설문 대상자 (총 754명)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109	23.2
	30대	129	27.4
	40대	136	28.9
	50대	90	19.1
	60대 이상	6	1.3
	결측값	284	-
전공	유아교육학	526	74.5
	보육학	13	1.8
	아동학	45	6.4
	보육교사교육원	32	4.5
	사회복지학	53	7.5
	기타	37	5.2
	결측값	48	-
경력	5년 미만	190	26.0
	5년 이상~10년 미만	170	23.3
	10년이상~15년미만	116	15.9
	15년 이상~20년 미만	65	8.9
	20년 이상	144	19.7
	없음	46	6.3
	결측값	23	-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자녀사항	미혼	253	33.8
	기혼 유자녀	464	62.0
	기혼 무자녀	31	4.1
	결측값	6	-
근무	국·공립 유치원	134	18.0
	사립 유치원	257	34.5
	국공립 어린이집	86	11.5
	사립 어린이집	176	23.6
	취업(학부모)	36	4.8
	자영업(학부모)	6	.8
	전업주부(학부모)	50	6.7
	결측값	9	-
직위와 신분	유치원원장	42	5.6
	유치원 교사	342	45.5
	유치원 학부모	66	8.8
	어린이집원장	133	17.7
	어린이집교사	133	17.7
	어린이집학부모	36	4.8
	결측값	2	-
지역	도시(동)	506	67.3
	읍면	246	32.7
	결측값	2	-

2. 연구 내용 및 자료 수집·분석

가. 질적 연구

1)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영·유아 현장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개별 인터뷰 내용을 모두 녹취했다. 인터뷰는 ‘열기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회당 2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질의 내용은 사전에 5개 영역별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구조화 설문의 방법을 통해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녹취한 모든 내용은 전사의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방형 코딩, 축 코딩, 선택형 코딩 순서로 진행했다. 전사한 모든 내용을 핵심 키워드별로 코딩하고, 코딩한 내용을 핵심 주제별로 유목화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및 해석했다.

2) 질적 연구 질문 영역과 질문 내용

본 연구의 질문 영역과 질문 내용 구성을 위해 연구자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델 구축 연구(지성애 외, 2015)의 기본 요소를 주로 참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의 검토(안면 타당도)를 바탕으로 5가지 영역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질문 문항을 설계했다. 전문가협의회는 C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M대 아동보육과 교수, D대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M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쌍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하여 부가되는 질문은 연관하여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을 위한 5가지 영역은 ①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 ② 행정통합 ③ 인적통합 ④ 재정·시설통합 ⑤ 누리과정 및 의무교육화로 구분했다.

<표 Ⅲ-3> 인터뷰 질문내용 영역 구분

순	영역	질문내용
1	유보통합 의미와 필요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유보통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아측면에서 유보통합은 어떤 의미와 필요성을 가질까요? 일부 기관의 유보통합 반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령이 겹치는 부분적(만3~5세) 유보통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만약 유보통합이 된다면, 유보통합의 기준은 무엇이 좋을까요? 유보통합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행정통합	관리부처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령별 통합과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유보통합에 어떻게 적용가능한가요? 기관의 평가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 및 이용시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가요?
3	인적통합	교사의 자격 취득방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사이버 학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육교사교육원 역할과 경제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재정·시설통합	재무회계와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회계 및 시설기준 일원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용 부담 구분과 부담 주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통합 후 시설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	누리과정 및 의무교육화	전과 비교하여 누리과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방과 후 특성화에 대한 가격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과 후 특성화에 대한 규제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유아의무교육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 5세의 의무 교육화(pre-schoo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 (양적연구) 설문 내용 및 설문 수집·분석

1) 설문 내용

설문내용은 다음의 3가지를 주요 범주로 유목화 했다. 첫째, 유보통합의 의미와 (불)필요성 이유이다. 이 범주의 구체적인 사항은 유보통합의 실제적 의미에 대한 항목과 필요와 불필요 정도에 따라 필요한 이유와 불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물어보는 내용이다.

둘째, 통합 시 정책 방향이다. 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부처, 통합 연령범위, 기관 분리, 기관의 명칭, 통합 우선사항, 통합의 방향성, 교사 자격기준, 교사 자격구분, 교사 자격체계 및 직위, 교사자격 취득 방법, 교사 양성기관, 보육교사 3급 자격, 교사처우, 기관 설립유형, 통합기관 기준, 교육 시간, 비용 부담, 우선 지원 사항, 중요 점검사항이다.

셋째,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의무교육화의 필요성, 의무교육의 연령범위 등이다.

<표> 설문 내용 영역 구분

순	영역	질문내용
1	유보통합 의미와 필요성	유보통합의 의미와 항목 / 필요성 및 이유 / 불필요성 및 이유
2	유보통합 정책방향	관장부처 / 통합 연령범위 / 기관 분리 / 기관의 명칭 / 통합 우선사항 / 통합의 방향성 / 교사 자격기준 / 교사 자격구분 / 교사 자격체계 및 직위 / 교사자격 취득 방법 / 교사 양성기관 / 보육교사 3급 자격 / 교사처우 / 기관 설립유형 / 통합기관 기준 / 교육 시간 / 비용 부담 / 우선 지원 사항 / 중요 점검사항
3	누리과정 및 의무교육화	국가의 의무교육화의 필요성 / 의무교육의 연령범위

2) 설문 수집

설문 수집은 세 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첫째, 온라인(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했다. 온라인 설문전문 프로그램인「서베이 몽키」를 활용하여 설문을 수집했다.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여 답변하고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수집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둘째, 설문 원 파일을 해당자가 다운 받고 작성(또는 스캔) 후 본 연구원의 이메일을 통해 수집했다. 셋째, 일부 기관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우편으로 되받는 방법을 취했다.

설문 구성은 객관식 선택, 복수응답, 기타 주관식 의견 등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대상은 경남 도내 전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교원(원장, 원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기간은 2016. 7.11.(월) ~ 7.20(수), 10일간 실시했다. 설문인원의 총 설문인원수는 912명이었고, 유효 인원수는 754명으로 유효투표율은 82.7%로 나타났다.

3) 설문 분석 방법

통계 프로그램인 IBM SPSS 2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교차분석 등을 실시했다. 통계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유의미한 분석이 나온 경우에만 연구결과에 분석하여 기술했다.

Ⅳ. 연구 결과

1. 설문을 활용한 유보 통합의 인식 분석

가.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의 의미와 필요성

1)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의 의미

가) 전체 대상(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의미 분석

유보통합의 의미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이 35.9%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1> 전체 대상(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의미 분석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	352	46.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	271	35.9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 통합	20	2.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 통합	41	5.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양성 및 자격체제의 통합	67	8.9
기타	3	.4
합계	754	100.0

나) 경력과 유보통합 의미 분석

경력에 따른 유보통합 의미를 분석한 결과, 경력이 15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이 61.5%, 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이 6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력이 5년 미만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이 35.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이 38.9%로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이 5년이상 10년 미만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이 44.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이 35.9%로 나타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력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이 44.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이 41.4%로 나타나 역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경력과 유보통합 의미 분석

(단위: %)

경력	의미							x ²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양성 및 자격체제의 통합	기타	합계	
5년 미만	35.3%	38.9%	2.6%	8.4%	13.2%	1.6%	100.0	77.178*** (df=25)
5년 이상 ~10년 미만	44.1%	35.9%	1.8%	4.7%	13.5%	0.0%	100.0	
10년이상~15년미만	47.4%	41.4%	1.7%	6.0%	3.4%	0.0%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61.5%	26.2%	1.5%	7.7%	3.1%	0.0%	100.0	
20년 이상	64.6%	26.4%	4.9%	2.1%	2.1%	0.0%	100.0	
없음	34.8%	54.3%	0.0%	0.0%	10.9%	0.0%		
전체	47.3%	36.0%	2.5%	5.3%	8.5%	.4%	100.0	

***: p<.001

다) 근무 형태(소속)와 유보통합 의미 분석

근무형태에 따른 유보통합 의미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학부모), 자영업(학부모)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3> 근무 형태와 유보통합 의미 분석

(단위: %)

근무	의미							x ²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명칭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양성 및 자격체제의 통합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62.7%	28.4%	1.5%	3.0%	4.5%	0.0%	100.0	57.556** (df=30)
사립 유치원	37.7%	38.1%	2.7%	7.4%	13.2%	.8%	100.0	
국공립 어린이집	59.3%	25.6%	2.3%	4.7%	8.1%	0.0%	100.0	
사립 어린이집	47.2%	37.5%	4.0%	5.1%	6.3%	0.0%	100.0	
취업(학부모)	52.8%	33.3%	0.0%	2.8%	11.1%	0.0%	100.0	
자영업(학부모)	66.7%	16.7%	0.0%	16.7%	0.0%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24.0%	56.0%	4.0%	4.0%	10.0%	2.0%	100.0	
전체	47.0%	35.6%	2.7%	5.4%	9.0%	.4%	100.0	

** : p<.01

2) 유보 통합의 필요성

가) 전체 대상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긍정률(‘필요’)이 51.3%로 부정률(‘불필요’) 36.1%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필요정도에 대한 평균은 3.25(5점 척도)로 나타났다.

<표 IV-4> 유보통합 필요성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불필요	218	28.9
약간불필요	54	7.2
보통	95	12.6
약간필요	98	13.0
매우필요	289	38.3
합계	754	100.0

<표 IV-5>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유보통합 필요정도	754	3.25	1.683

3)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필요 답변자)

가) 전체 대상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평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가 31.1%로 그 뒤를 이었다. ‘학부모가 어떤 곳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8.9%로 나타났다.

<표 IV-6> 유보통합 필요 이유 분석

응답 구분	빈도 (N)	응답률 (%)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평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133	31.1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8	1.9
학부모가 어떤 곳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1	18.9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시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갖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40	9.3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39	32.5
기타	27	6.3
미해당자	326	-
합계	754	100.0

나) 경력과 유보통합 필요 이유

경력에 따른 유보통합의 필요 이유를 분석한 결과, 20년 이상은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평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가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년 이상 20년 미만도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평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0년이상 15년미만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시 5년이상 10년 미만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 미만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이 없음인 학부모들은 '학부모가 어떤 곳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4.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7> 경력과 유보통합 필요 이유 분석 (단위: %)

경력	필요 이유							χ ²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평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어떤 곳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과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갖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타	합계	
5년 미만	14.8%	3.7%	16.0%	9.9%	30.9%	24.7%	100.0	126.014*** (df=25)
5년 이상 ~10년 미만	16.1%	0.0%	29.0%	10.8%	38.7%	5.4%	100.0	
10년이상~15년미만	30.0%	0.0%	22.5%	11.3%	35.0%	1.3%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0.0%	2.3%	6.8%	6.8%	31.8%	2.3%	100.0	
20년 이상	57.4%	2.1%	7.4%	5.3%	27.7%	0.0%	100.0	
없음	22.2%	5.6%	44.4%	5.6%	22.2%	0.0%		
전체	32.0%	1.7%	18.5%	8.8%	32.4%	6.6%	100.0	

***: p<.001

다) 근무형태와 유보통합 필요이유

근무형태에 따른 유보통합의 필요이유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은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평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도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평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학부모)은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평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립어린이집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학부모)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전업주부(학부모)만 '학부모가 어떤 곳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8> 근무형태와 유보통합 필요 이유 분석 (단위: %)

근무	필요 이유							χ ²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평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어떤 곳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시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갖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48.5%	0.0%	10.3%	7.4%	33.8%	0.0%	100.0	195.073*** (df=30)
사립 유치원	13.6%	4.9%	9.9%	3.7%	34.6%	33.3%	100.0	
국공립 어린이집	51.3%	0.0%	7.9%	13.2%	27.6%	0.0%	100.0	
사립 어린이집	28.6%	1.4%	26.5%	9.5%	34.0%	0.0%	100.0	
취업 (학부모)	21.7%	0.0%	30.4%	13.0%	34.8%	0.0%	100.0	
자영업 (학부모)	50.0%	0.0%	25.0%	25.0%	0.0%	0.0%		
전업주부 (학부모)	4.0%	8.0%	48.0%	12.0%	28.0%	0.0%	100.0	
전체	31.4%	1.9%	18.9%	9.2%	32.3%	6.4%		

***: p<.001

3) 불필요 이유(불필요 답변자)

가) 전체대상(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유보통합 불필요 이유는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므로'가 28.0%로 나타났다.

<표 IV-9> 유보통합 불필요 이유(불필요 답변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199	50.3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업이 잘되고 있으므로	8	2.0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므로	111	28.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쟁을 통한 학부모의 선택 폭이 넓으므로	20	5.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 교사의 신분과 자격이 달라야 하므로	30	7.6
기타	28	7.1
미해당자	358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불필요 이유

연령에 따른 불필요 이유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은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대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므로’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IV-10> 연령과 통합 불필요 이유 분석

(단위: %)

연령	불필요 이유							χ ²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업이 잘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쟁을 통한 학부모의 선택 폭이 넓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신분과 자격이 달라야 하므로	기타	합계	
20대	38.8%	1.3%	43.8%	3.8%	10.0%	2.5%	100.0	39.516** (df=20)
30대	60.0%	1.3%	25.3%	5.3%	6.7%	1.3%	100.0	
40대	58.8%	2.4%	17.6%	11.8%	9.4%	0.0%	100.0	
50대	68.3%	6.7%	20.0%	0.0%	5.0%	0.0%	100.0	
60대 이상	50.0%	0.0%	25.0%	0.0%	25.0%	0.0%	100.0	
전체	55.6%	2.6%	27.0%	5.6%	8.2%	1.0%	100.0	

** : p<.01

다) 경력과 통합 불필요 이유

경력에 따른 유보통합 불필요 이유를 분석한 결과, 20년 이상은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년이상 20년 미만도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년이상 15년미만도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이상 10년 미만도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이 없는 학부모도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년 미만은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므로’가 34.7%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11> 경력과 통합 불필요 이유 분석

(단위: %)

경력	불필요 이유							x ²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업이 잘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쟁을 통한 학부모의 선택 폭이 넓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교사의 신분과 자격이 달라야 하므로	기타	합계	
5년 미만	34.7%	.8%	34.7%	2.5%	6.6%	20.7%	100.0	76.402*** (df=25)
5년 이상 ~10년 미만	47.4%	3.1%	33.0%	6.2%	8.2%	2.1%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57.1%	0.0%	22.4%	6.1%	12.2%	2.0%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62.5%	0.0%	25.0%	3.1%	9.4%	0.0%	100.0	
20년 이상	65.8%	5.5%	17.8%	5.5%	5.5%	0.0%	100.0	
없음	70.0%	0.0%	20.0%	5.0%	5.0%	0.0%		
전체	50.5%	2.0%	28.1%	4.6%	7.7%	7.1%	100.0	

***: p<.001

라) 근무형태와 불필요 이유

근무형태에 따른 불필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은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립어린이집도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업주부(학부모)도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학부모)도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영업(학부모)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므로’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사립 유치원은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가 36.9%로 가장 높았으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므로’도 35.9%로 나타나 상대적인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2> 근무형태와 통합 불필요 이유 분석 (단위: %)

근무	불필요 이유							x ²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업이 잘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므로	유치원, 어린이집 경쟁 통한 학부모의 선택 폭이 넓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신분, 자격이 다르므로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67.4%	1.2%	24.4%	2.3%	4.7%	0.0%	100.0	87.273*** (df=30)
사립 유치원	36.9%	1.5%	35.9%	3.0%	8.6%	14.1%	100.0	
국공립어린이집	52.6%	10.5%	15.8%	5.3%	15.8%	0.0%	100.0	
사립 어린이집	62.7%	3.9%	15.7%	7.8%	9.8%	0.0%	100.0	
취업(학부모)	61.1%	0.0%	11.1%	22.2%	5.6%	0.0%	100.0	
자영업(학부모)	0.0%	0.0%	100.0%	0.0%	0.0%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63.6%	0.0%	22.7%	13.6%	0.0%	0.0%	100.0	
전체	50.1%	2.0%	28.1%	5.1%	7.6%	7.1%		

***: p<.001

나. 유보 통합 방법

1) 통합 시 관장부처

가) 전체 대상(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유보통합 시 관장부처는 교육부가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통합 시 관장부처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교육부	632	83.9
보건복지부	18	2.4
여성가족부	24	3.2
국무총리실	3	.4
국무총리실 선통합 후 교육부	30	4.0
기타	46	6.1
결측값	1	-
합계	754	100.0

나) 연령에 따른 관장부처에 대한 의견 분석

연령에 따른 관장부처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91.7%, 30대는 91.5%, 40대는 86.0%, 50대는 85.6%, 60대 이상은 66.7%로 나타났다. 다만, 60대 이상은 보건복지부가 33.3%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IV-14> 연령에 따른 관장부처에 대한 의견 분석 (단위: %)

연령	부처							χ ²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선통합 후 교육부	기타	합계	
20대	91.7%	2.8%	.9%	0.0%	2.8%	1.8%	100.0	35.032* (df=20)
30대	91.5%	3.1%	.8%	.8%	3.1%	.8%	100.0	
40대	86.0%	2.9%	5.1%	0.0%	5.9%	0.0%	100.0	
50대	85.6%	2.2%	5.6%	1.1%	5.6%	0.0%	100.0	
60대 이상	66.7%	33.3%	0.0%	0.0%	0.0%	0.0%	100.0	
전체	88.5%	3.2%	3.0%	.4%	4.3%	.6%	100.0	

*: p<.05

다) 전공과 관장부처

전공에 따른 부처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전공에서 교육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학은 84.2%, 보육학은 84.6%, 보육교사교육원은 90.6%, 아동학은 77.8%, 사회복지학은 73.6%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학과 복지학은 보건복지부라는 의견도 각각 11.1%, 11.3%로 나타나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IV-15> 전공과 관장부처 분석 (단위: %)

전공	부처							χ ²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선통합 후 교육부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84.2%	1.0%	1.9%	.2%	4.2%	8.6%	100.0	92.182*** (df=40)
보육학	84.6%	7.7%	7.7%	0.0%	0.0%	0.0%	100.0	
아동학	77.8%	11.1%	6.7%	0.0%	4.4%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90.6%	3.1%	3.1%	0.0%	3.1%	0.0%	100.0	
사회복지학	73.6%	11.3%	7.5%	1.9%	5.7%	0.0%	100.0	
기타	82.6%	0.0%	13.0%	0.0%	4.3%	0.0%	100.0	
전체	83.3%	2.5%	3.3%	.4%	4.1%	6.4%	100.0	

***: p<.001

라) 경력과 통합 부처

경력에 따른 부처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교육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이상 10년미만은 88.2%, 10년이상 15년미만은 88.8%, 15년이상 20년미만은 86.2%, 20년 이상은 87.5%, 5년 미만은 74.2%, 없음(학부모)은 78.3%로 나타났다. 다만 5년 미만과 없음(학부모)은 각각 기타가 18.4%, 보건복지부가 10.0%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16> 경력과 통합 부처 의견 분석 (단위: %)

경력	부처							x ²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선통합 후 교육부	기타	합계	
5년 미만	74.2%	2.1%	1.6%	0.0%	3.7%	18.4%	100.0	106.591*** (df=25)
5년 이상 ~10년 미만	88.2%	1.2%	1.8%	0.0%	3.6%	5.3%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88.8%	.9%	5.2%	0.0%	4.3%	.9%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6.2%	1.5%	3.1%	3.1%	4.6%	1.5%	100.0	
20년 이상	87.5%	3.5%	4.2%	0.0%	4.9%	0.0%	100.0	
없음	78.3%	10.9%	4.3%	2.2%	4.3%	0.0%		
전체	83.7%	2.5%	3.0%	.4%	4.1%	6.3%	100.0	

***: p<.001

마) 근무형태와 통합 부처

근무형태에 따른 부처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교육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은 93.3%, 국공립어린이집은 88.4%, 사립어린이집은 89.2%, 전업주부(학부모)는 92.0%, 사립유치원은 75.5%, 취업(학부모)와 자영업(학부모)는 66.7%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학부모)와 자영업(학부모)는 여성가족부가 각각 13.9%, 33.3%를 나타내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17> 근무형태와 통합 부처 의견 분석 (단위: %)

근무	부처							x ²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선통합 후 교육부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93.3%	2.2%	2.2%	0.0%	2.2%	0.0%	100.0	155.762*** (df=30)
사립 유치원	75.5%	1.2%	1.2%	0.0%	4.3%	17.9	100.0	
국공립 어린이집	88.4%	0.0%	3.5%	1.2%	7.0%	0.0%	100.0	
사립 어린이집	89.2%	4.5%	4.0%	.6%	1.7%	0.0%	100.0	
취업(학부모)	66.7%	8.3%	13.9%	2.8%	8.3%	0.0%	100.0	
자영업(학부모)	66.7%	0.0%	33.3%	0.0%	0.0%	0.0%		
전업주부(학부모)	92.0%	2.0%	2.0%	0.0%	4.0%	0.0%	100.0	
전체	84.0%	2.4%	3.2%	.4%	3.8%	6.2%		

***: p<.001

2) 통합 시 연령범위

가) 전체 대상(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통합 시 연령범위는 만3~5세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만0~5세가 30.2%로 나타났다.

<표 IV-18> 통합 시 연령범위 의견 분석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만 0~5세	228	30.2
만 1~5세	36	4.8
만 2~5세	83	11.0
만 3~5세	352	46.7
만 4~5세	52	6.9
기타	3	.4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연령범위

연령에 따른 연령범위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만3~5세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도 만3~5세가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도 만3~5세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만3~5세와 만2~5세가 33.3%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40대는 만0~5세가 44.1%를 보여 다른 연령과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IV-19> 연령과 연령범위 분석

(단위: %)

연령	연령 범위							x ²
	만 0~5세	만 1~5세	만 2~5세	만 3~5세	만 4~5세	기타	합계	
20대	19.3%	2.8%	13.8%	53.2%	9.2%	1.8%	100.0	41.840** (df=20)
30대	32.6%	4.7%	8.5%	49.6%	3.9%	.8%	100.0	
40대	44.1%	2.2%	14.7%	37.5%	1.5%	0.0%	100.0	
50대	32.2%	7.8%	7.8%	44.4%	7.8%	0.0%	100.0	
60대 이상	16.7%	16.7%	33.3%	33.3%	0.0%	0.0%	100.0	
전체	32.6%	4.3%	11.7%	45.7%	5.1%	.6%	100.0	

** : p<.01

다) 전공과 연령범위

전공에 따른 연령범위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학은 만3~5세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도 만3~5세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학은 만0~5세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교육원도 만0~5세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학도 만0~5세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0> 전공과 연령범위 분석 (단위: %)

전공	연령 범위							x2
	만 0~5세	만 1~5세	만 2~5세	만 3~5세	만 4~5세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27.0%	3.8%	11.0%	51.5%	6.1%	.6%	100.0	71.663** (df=40)
보육학	76.9%	7.7%	7.7%	7.7%	0.0%	0.0%	100.0	
아동학	28.9%	6.7%	13.3%	44.4%	6.7%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46.9%	0.0%	6.3%	40.6%	6.3%	0.0%	100.0	
사회복지학	43.4%	15.1%	11.3%	24.5%	5.7%	0.0%	100.0	
기타	17.4%	13.0%	17.4%	30.4%	21.7%	0.0%		
전체	30.5%	5.0%	11.0%	46.5%	6.7%	.4%	100.0	

** : p<.01

라) 경력과 연령범위

경력에 따른 연령범위를 분석한 결과, 5년 미만은 만3~5세가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이상 10년미만도 만3~5세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년이상도 만3~5세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없음(학부모)더 만3~5세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5년이상 20년미만은 만0~5세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10년이상 15년미만은 만3~5세가 37.9%이고, 만0~5세는 39.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IV-21> 경력과 연령범위 분석 (단위: %)

경력	연령 범위							x2
	만 0~5세	만 1~5세	만 2~5세	만 3~5세	만 4~5세	기타	합계	
5년 미만	18.9%	4.7%	7.9%	58.9%	8.4%	1.1%	100.0	47.732** (df=25)
5년 이상 ~10년 미만	29.4%	4.1%	14.1%	45.9%	5.9%	.6%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37.9%	2.6%	14.7%	39.7%	5.2%	0.0%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41.5%	3.1%	15.4%	38.5%	1.5%	0.0%	100.0	
20년 이상	33.3%	6.3%	6.3%	45.8%	8.3%	0.0%	100.0	
없음	37.0%	10.9%	6.5%	43.5%	2.2%	0.0%		
전체	30.4%	4.8%	10.7%	47.5%	6.3%	.4%	100.0	

** : p<.01

바) 근무형태와 연령범위

근무형태에 따른 연령범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취업(학부모), 전업주부(학부모)는 만 3~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은 만 0~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학부모)은 만2~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2> 근무형태와 연령범위 분석

(단위: %)

근무	연령 범위							x2
	만 0~5세	만 1~5세	만 2~5세	만 3~5세	만 4~5세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19.4%	4.5%	6.0%	62.7%	7.5%	0.0%	100.0	120.990*** (df=30)
사립 유치원	16.3%	2.7%	12.5%	59.1%	8.2%	1.2%	100.0	
국공립 어린이집	53.5%	7.0%	8.1%	22.1%	9.3%	0.0%	100.0	
사립 어린이집	45.5%	6.8%	13.1%	32.4%	2.3%	0.0%	100.0	
취업(학부모)	33.3%	5.6%	16.7%	38.9%	5.6%	0.0%	100.0	
자영업(학부모)	33.3%	0.0%	50.0%	16.7%	0.0%	0.0%		
전업주부(학부모)	34.0%	6.0%	8.0%	42.0%	10.0%	0.0%	100.0	
전체	30.2%	4.8%	11.1%	46.7%	6.7%	.4%		

***: p<.001

3) 통합 시 연령별 분리방법

가) 전체대상

통합 시 연령별 분리방법은 '만 0~2세와 만 3~5세 분리'가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통합 시 연령별 분리 방법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만 0~2세와 만 3~5세 분리	550	72.9
만 0~1세와 만 2~5세 분리	67	8.9
만 0세와 만 1~5세 분리	15	2.0
연령 분리하지 않고 만 0~5세 통합	72	9.5
기타	50	6.6
합계	754	100.0

나) 경력과 연령별 분리방법

경력에 따른 연령별 분리방법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구분항목에서 만 0~2세와 만

3~5세 분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4> 경력과 연령별 분리방법 분석

(단위: %)

경력	분리방법						χ ²
	만 0~2세와 만 3~5세 분리	만 0~1세와 만 2~5세 분리	만 0세와 만 1~5세 분리	연령 분리하지 않고 만 0~5세 통합	기타	합계	
5년 미만	68.4%	5.3%	3.2%	4.2%	18.9%	100.0	82.848*** (df=20)
5년 이상 ~10년 미만	73.5%	11.2%	1.2%	7.6%	6.5%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75.0%	9.5%	2.6%	12.9%	0.0%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72.3%	13.8%	0.0%	12.3%	1.5%	100.0	
20년 이상	74.3%	8.3%	2.8%	13.2%	1.4%	100.0	
없음	82.6%	8.7%	0.0%	8.7%	0.0%		
전체	73.1%	8.9%	2.1%	9.2%	6.8%	100.0	

***: p<.001

다) 근무형태와 분리방법

근무에 따른 연령별 분리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구분에서 만 0~2세와 만 3~5세 분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영업(학부모)은 만 0~1세와 만 2~5세 분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25> 근무형태와 분리방법 분석

(단위: %)

근무	분리방법						χ ²
	만 0~2세와 만 3~5세 분리	만 0~1세와 만 2~5세 분리	만 0세와 만 1~5세 분리	연령 분리하지 않고 만 0~5세 통합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91.8%	3.0%	1.5%	2.2%	1.5%	100.0	172.105*** (df=24)
사립 유치원	67.3%	9.3%	3.1%	2.7%	17.5%	100.0	
국공립 어린이집	65.1%	7.0%	2.3%	23.3%	2.3%	100.0	
사립 어린이집	66.5%	13.1%	1.7%	18.2%	.6%	100.0	
취업(학부모)	77.8%	13.9%	0.0%	8.3%	0.0%	100.0	
자영업(학부모)	16.7%	66.7%	0.0%	16.7%	0.0%		
전업주부(학부모)	88.0%	2.0%	0.0%	10.0%	0.0%	100.0	
전체	72.8%	9.0%	2.0%	9.5%	6.7%		

***: p<.001

4) 통합 시 연령에 따른 기관 분리 방법

가) 전체대상

통합 시 연령에 따른 기관 분리방법은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만 0~5세 통합기관’이 16.7%로 나타났다.

<표 IV-26> 통합 시 연령에 따른 기관 분리 방법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	524	69.5
만 0~1세 어린이집, 만2~5세 유치원	57	7.6
만 0세 어린이집, 만1~5세 유치원	13	1.7
만 0~5세 유치원	23	3.1
만 0~5세 어린이집	8	1.1
만 0~5세 통합기관	126	16.7
기타	3	.4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기관분리

연령과 기관분리를 분석한 결과,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이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연령과 기관분리 분석

(단위: %)

연령	기관분리								x ²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	만 0~1세 어린이집, 만2~5세 유치원	만 0세 어린이집, 만1~5세 유치원	만 0~5세 유치원	만 0~5세 어린이집	만 0~5세 통합기관	기타	합계	
20대	76.1%	6.4%	3.7%	3.7%	.9%	7.3%	1.8%	100.0	45.912** (df=24)
30대	79.8%	5.4%	.8%	4.7%	.8%	7.8%	.8%	100.0	
40대	55.1%	11.0%	0.0%	5.1%	1.5%	27.2%	0.0%	100.0	
50대	70.0%	8.9%	1.1%	3.3%	0.0%	16.7%	0.0%	100.0	
60대 이상	83.3%	0.0%	0.0%	0.0%	0.0%	16.7%	0.0%	100.0	
전체	70.0%	7.9%	1.3%	4.3%	.9%	15.1%	.6%	100.0	

** : p<.01

다) 전공과 기관분리

전공과 기관분리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학, 아동학, 보육교사교육원, 사회복지학,

기타전공은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학은 만 0~5세 통합기관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8> 전공과 기관분리 분석

(단위: %)

전공	기관분리								x ²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	만 0~1세 어린이집, 만2~5세 유치원	만 0세 어린이집, 만1~5세 유치원	만 0~5세 유치원	만 0~5세 어린이집	만 0~5세 통합기관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73.2%	7.4%	2.1%	2.7%	1.0%	13.1%	.6%	100.0	74.066** (df=48)
보육학	30.8%	7.7%	0.0%	15.4%	7.7%	38.5%	0.0%	100.0	
아동학	64.4%	11.1%	0.0%	4.4%	2.2%	17.8%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71.9%	3.1%	0.0%	0.0%	0.0%	25.0%	0.0%	100.0	
사회복지학	54.7%	7.5%	0.0%	5.7%	0.0%	32.1%	0.0%	100.0	
기타	69.6%	13.0%	4.3%	0.0%	0.0%	13.0%	0.0%		
전체	69.3%	7.6%	1.7%	3.1%	1.0%	16.9%	.4%	100.0	

** : p<.01

라) 경력과 기관분리

경력과 기관분리를 분석한 결과, 경력유무와 상관없이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9> 경력과 기관분리 분석

(단위: %)

경력	기관분리								x ²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	만 0~1세 어린이집, 만2~5세 유치원	만 0세 어린이집, 만1~5세 유치원	만 0~5세 유치원	만 0~5세 어린이집	만 0~5세 통합기관	기타	합계	
5년 미만	80.0%	5.3%	2.1%	3.2%	0.0%	8.4%	1.1%	100.0	47.644* (df=30)
5년 이상 ~10년 미만	71.8%	7.1%	1.2%	3.5%	1.8%	14.1%	.6%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61.2%	12.9%	2.6%	2.6%	.9%	19.8%	0.0%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5.4%	9.2%	0.0%	6.2%	0.0%	29.2%	0.0%	100.0	
20년 이상	63.9%	6.9%	2.1%	2.8%	1.4%	22.9%	0.0%	100.0	
없음	80.4%	4.3%	2.2%	0.0%	0.0%	13.0%	0.0%		
전체	69.8%	7.5%	1.8%	3.1%	.8%	16.6%	.4%	100.0	

* : p<.05

바) 근무와 기관분리

근무와 기관분리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취업(학부모), 전업주부(학부모)는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만 0~5세 통합기관이 가장 높았고, 자영업(학부모)는 만 0~1세 어린이집, 만2~5세 유치원이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IV-30> 근무와 기관분리 분석

(단위: %)

근무	기관분리								χ ²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	만 0~1세 어린이집, 만2~5세 유치원	만 0세 어린이집, 만1~5세 유치원	만 0~5세 유치원	만 0~5세 어린이집	만 0~5세 통합기관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91.8%	3.0%	0.0%	1.5%	0.0%	3.7%	0.0%	100.0	236.777*** (df=36)
사립 유치원	82.9%	7.8%	2.7%	1.6%	.4%	3.5%	1.2%	100.0	
국공립 어린이집	29.1%	4.7%	2.3%	5.8%	3.5%	54.7%	0.0%	100.0	
사립 어린이집	50.6%	12.5%	1.7%	6.3%	1.1%	27.8%	0.0%	100.0	
취업(학부모)	66.7%	11.1%	2.8%	2.8%	2.8%	13.9%	0.0%	100.0	
자영업(학부모)	33.3%	50.0%	0.0%	0.0%	0.0%	16.7%	0.0%		
전업주부(학부모)	82.0%	0.0%	0.0%	0.0%	2.0%	16.0%	0.0%	100.0	
전체	69.4%	7.7%	1.7%	3.1%	1.1%	16.6%	.4%		

***: p<.001

5) 통합 시 기관명칭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기관명칭은 ‘영아학교(만 0~2세)와 유아학교(만 3~5세)’가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학교(만 0~5세)’가 27.7%로 나타났다.

<표 IV-31> 통합 시 기관명칭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영유아학교(만 0~5세)	209	27.7
어린이집(만 0~2세)과 유치원(만 3~5세)	127	16.8
어린이집(만 0~2세)과 유아학교(만 3~5세)	136	18.0
영아학교(만 0~2세)와 유아학교(만 3~5세)	227	30.1
기타	55	7.3
합계	754	100.0

나) 경력과 통합기관명

경력과 통합기관명을 분석한 결과,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없음(학부모)은 영아학교(만 0~2세)와 유아학교(만 3~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년미만, 20년이상은 영유아학교(만 0~5세)가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IV-32> 경력과 통합기관명 분석 (단위: %)

경력	기관명						x ²
	영유아학교 (만 0~5세)	어린이집 (만 0~2세)과 유치원 (만 3~5세)	어린이집 (만 0~2세)과 유아학교 (만 3~5세)	영아학교 (만 0~2세)와 유아학교 (만 3~5세)	기타	합계	
5년 미만	19.5%	22.1%	13.7%	25.8%	18.9%	100.0	86.718*** (df=20)
5년 이상~10년 미만	28.2%	17.1%	19.4%	28.8%	6.5%	100.0	
10년이상~15년미만	31.9%	12.1%	18.1%	37.1%	.9%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41.5%	10.8%	10.8%	33.8%	3.1%	100.0	
20년 이상	29.9%	11.1%	26.4%	29.2%	3.5%	100.0	
없음	23.9%	30.4%	13.0%	32.6%	0.0%	100.0	
전체	27.8%	16.7%	17.9%	30.1%	7.5%	100.0	

***: p<.001

다) 전공과 통합기관명

전공과 통합기관명을 분석한 결과, 보육학, 아동학, 보육교사교육원, 사회복지학은 영유아학교(만 0~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아교육학은 영아학교(만 0~2세)와 유아학교(만 3~5세)이 가장 높았고, 기타전공은 어린이집(만 0~2세)과 유아학교(만 3~5세)이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IV-33> 전공과 통합기관명 분석 (단위: %)

전공	기관명						x ²
	영유아학교 (만 0~5세)	어린이집 (만 0~2세)과 유치원 (만 3~5세)	어린이집 (만 0~2세)과 유아학교 (만 3~5세)	영아학교 (만 0~2세)와 유아학교 (만 3~5세)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23.0%	16.9%	20.7%	29.1%	10.3%	100.0	78.021*** (df=32)
보육학	76.9%	7.7%	7.7%	7.7%	0.0%	100.0	
아동학	35.6%	11.1%	17.8%	35.6%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40.6%	21.9%	9.4%	28.1%	0.0%	100.0	
사회복지학	39.6%	15.1%	7.5%	37.7%	0.0%	100.0	
기타	26.1%	21.7%	30.4%	21.7%	0.0%	100.0	
전체	28.2%	16.3%	18.7%	29.2%	7.6%	100.0	

***: p<.001

라) 근무와 통합기관명

근무와 통합기관명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취업(학부모)는 영아학교(만 0~2세)와 유아학교(만 3~5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자영업(학부모)는 영유아학교(만 0~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전업주부(학부모)는 영유아학교(만 0~5세)와 영아학교(만 0~2세)와 유아학교(만 3~5세)가 30.0%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34> 근무와 통합기관명 분석 (단위: %)

근무	기관명						χ ²
	영유아학교 (만 0~5세)	어린이집 (만 0~2세)과 유치원 (만 3~5세)	어린이집 (만 0~2세)과 유아학교 (만 3~5세)	영아학교 (만 0~2세)와 유아학교 (만 3~5세)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9.0%	11.2%	34.3%	41.8%	3.7%	100.0	269.915*** (df=24)
사립 유치원	12.1%	23.7%	18.3%	27.2%	18.7%	100.0	
국공립 어린이집	70.9%	10.5%	4.7%	14.0%	0.0%	100.0	
사립 어린이집	46.0%	10.2%	9.1%	33.5%	1.1%	100.0	
취업(학부모)	13.9%	27.8%	25.0%	33.3%	0.0%	100.0	
자영업(학부모)	33.3%	0.0%	50.0%	16.7%	0.0%		
전업주부(학부모)	30.0%	26.0%	14.0%	30.0%	0.0%		
전체	27.8%	16.9%	17.7%	30.2%	7.4%		

***: p<.001

6) 통합 시 우선 통합 사항

가) 전체대상

통합 시 우선 통합 사항은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제 통합(프로그램, 운영시간 등)이 15.4%로 나타났다.

<표 IV-35> 통합 시 우선 통합 사항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	316	42.0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115	15.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제 통합(프로그램, 운영시간 등)	116	15.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통합	110	14.6
재정지원체계 및 설립유형별 재무회계규칙 통합	34	4.5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방식 통합	11	1.5
기타	50	6.6
결측값	2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우선통합사향

연령과 우선통합사향을 분석한 결과,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은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통합이 가장 높게 나오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36> 연령과 우선통합사향 분석 (단위: %)

연령	우선 통합								x ²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제 통합(프로그램, 운영시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양성제도 통합	재정지원체계 및 설립유형별규칙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방식 통합	기타	합계	
20대	27.5%	11.0%	17.4%	31.2%	7.3%	3.7%	1.8%	100.0	60.973*** (df=24)
30대	44.2%	12.4%	14.7%	22.5%	5.4%	0.0%	.8%	100.0	
40대	56.6%	9.6%	14.7%	12.5%	3.7%	2.9%	0.0%	100.0	
50대	63.3%	15.6%	11.1%	2.2%	5.6%	2.2%	0.0%	100.0	
60대 이상	83.3%	16.7%	0.0%	0.0%	0.0%	0.0%	0.0%	100.0	
전체	48.1%	11.9%	14.5%	17.4%	5.3%	2.1%	.6%	100.0	

***: p<.001

다) 전공과 우선통합사향

전공과 우선통합사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전공에서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37> 전공과 우선통합사향 분석 (단위: %)

전공	우선 통합								x ²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제 통합(프로그램, 운영시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양성제도 통합	재정지원체계 및 설립유형별규칙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방식 통합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41.9%	13.7%	13.7%	15.6%	4.6%	1.1%	9.3%	100.0	75.949** (df=48)
보육학	41.7%	8.3%	16.7%	25.0%	0.0%	8.3%	0.0%	100.0	
아동학	35.6%	20.0%	24.4%	15.6%	4.4%	0.0%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56.3%	3.1%	21.9%	3.1%	6.3%	9.4%	0.0%	100.0	
사회복지학	41.5%	22.6%	17.0%	11.3%	5.7%	1.9%	0.0%	100.0	
기타	34.8%	21.7%	26.1%	13.0%	4.3%	0.0%	0.0%	100.0	
전체	42.2%	14.9%	15.2%	14.6%	4.5%	1.6%	7.0%	100.0	

** : p<.01

라) 경력과 우선통합사항

경력과 우선통합사항을 분석한 결과, 경력유무와 상관없이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38> 경력과 우선통합사항 분석 (단위: %)

경력	우선 통합								χ ²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제 통합(프로그램, 운영시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통합	재정지원체계 및 설립유형별 재무회계규칙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방식 통합	기타	합계	
5년 미만	22.6%	11.6%	19.5%	19.5%	5.8%	2.1%	18.9%	100.0	151.290*** (df=30)
5년 이상 ~10년 미만	36.5%	14.7%	15.9%	18.2%	5.9%	1.8%	7.1%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48.2%	17.5%	14.0%	16.7%	1.8%	.9%	.9%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3.8%	16.9%	9.2%	7.7%	9.2%	1.5%	1.5%	100.0	
20년 이상	66.0%	20.1%	6.3%	5.6%	1.4%	.7%	0.0%	100.0	
없음	43.5%	8.7%	26.1%	17.4%	2.2%	2.2%	0.0%		
전체	42.5%	15.2%	14.7%	14.8%	4.4%	1.5%	6.9%	100.0	

***: p<.001

마) 근무형태와 우선 통합사항

근무와 우선통합사항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구분에서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통합도 23.7%로 같은 비율을 보이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39> 근무형태와 우선통합사항 분석 (단위: %)

경력	우선 통합								χ ²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제 통합(프로그램, 운영시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통합	재정지원체계 및 설립유형별 재무회계규칙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방식 통합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76.1%	4.5%	6.7%	7.5%	4.5%	.7%	0.0%	100.0	233.998*** (df=36)
사립 유치원	23.7%	13.6%	13.2%	23.7%	4.7%	1.6%	19.5%	100.0	
국·공립 어린이집	43.0%	26.7%	24.4%	4.7%	0.0%	1.2%	0.0%	100.0	
사립 어린이집	46.6%	19.5%	14.9%	11.5%	6.3%	1.1%	0.0%	100.0	
취업(학부모)	44.4%	11.1%	25.0%	8.3%	8.3%	2.8%	0.0%	100.0	
자영업(학부모)	66.7%	16.7%	0.0%	16.7%	0.0%	0.0%	0.0%		
전업주부(학부모)	28.0%	22.0%	22.0%	22.0%	2.0%	4.0%	0.0%	100.0	
전체	42.4%	15.3%	14.8%	14.8%	4.4%	1.5%	6.7%		

***: p<.001

7) 통합 시 방향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방향은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은 25.2%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40> 통합 시 방향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현재 어린이집과 같은 운영체제로 종일제 보육기능을 강화	31	4.1
현재 유치원과 같은 운영체제로 교육기능을 강화	156	20.8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	155	20.6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	189	25.2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	219	29.2
기타	1	.1
결측값	3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통합방향

연령과 통합방향을 분석한 결과, 40대, 50대, 60대 이상은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대, 30대는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41> 연령과 통합방향 분석

(단위: %)

연령	통합 방향						x ²
	현재 어린이집과 같은 운영체제로 종일제 보육기능을 강화	현재 유치원과 같은 운영체제로 교육기능을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	합계	
20대	5.6%	32.7%	14.0%	12.1%	35.5%	100.0	56.726*** (df=16)
30대	5.5%	20.3%	17.2%	26.6%	30.5%	100.0	
40대	3.7%	12.5%	26.5%	36.8%	20.6%	100.0	
50대	3.3%	8.9%	11.1%	38.9%	37.8%	100.0	
60대 이상	16.7%	0.0%	16.7%	50.0%	16.7%	100.0	
전체	4.7%	18.4%	18.0%	28.9%	30.0%	100.0	

***: p<.001

다) 전공과 통합방향

전공과 통합방향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교육원, 사회복지학은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아교육학은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이, 보육학 및 아동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42> 전공과 통합방향 분석

(단위: %)

전공	통합 방향							χ ²
	현재 어린이집과 같은 운영체제로 종일제 보육기능을 강화	현재 유치원과 같은 운영체제로 교육기능을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2.9%	22.8%	16.1%	23.9%	34.2%	.2%	100.0	73.615** (df=40)
보육학	0.0%	15.4%	38.5%	30.8%	15.4%	0.0%	100.0	
아동학	6.7%	15.6%	31.1%	26.7%	20.0%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3.1%	6.3%	25.0%	40.6%	25.0%	0.0%	100.0	
사회복지학	9.4%	13.2%	34.0%	35.8%	7.5%	0.0%	100.0	
기타	13.0%	26.1%	21.7%	21.7%	17.4%	0.0%	100.0	
전체	3.8%	20.6%	20.2%	25.9%	29.3%	.1%	100.0	

** : p<.01

리) 경력과 통합방향

경력과 통합방향을 분석한 결과, 20년미만, 20년이상, 없음(학부모)은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년미만, 10년미만은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15년미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과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이 27.6%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V-43> 경력과 통합방향 분석

(단위: %)

경력	통합 방향						기타	합계	x2
	현재 어린이집과 같은 운영체제로 종일제 보육기능을 강화	현재 유치원과 같은 운영체제로 교육기능을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				
5년 미만	5.3%	30.3%	18.1%	14.4%	31.9%	0.0%	100.0	73.050*** (df=25)	
5년 이상 ~10년 미만	1.8%	20.7%	20.7%	21.9%	34.3%	.6%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9%	18.1%	27.6%	27.6%	25.9%	0.0%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1%	15.4%	20.0%	43.1%	18.5%	0.0%	100.0		
20년 이상	3.5%	13.2%	16.0%	34.0%	33.3%	0.0%	100.0		
없음	15.2%	21.7%	19.6%	26.1%	17.4%	0.0%			
전체	3.8%	20.9%	20.1%	25.4%	29.7%	.1%	100.0		

***: p<.001

바) 근무형태와 통합방향

근무형태에 따른 통합 방향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은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립유치원도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학부모)과 전업(학부모)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이 각각 27.8%,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립어린이집은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자영업(학부모)도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44> 근무형태와 통합방향 분석

(단위: %)

경력	통합 방향							x ²
	현재 어린이집과 같은 운영체제로 종일제 보육기능을 강화	현재 유치원과 같은 운영체제로 교육기능을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2.2%	15.7%	8.2%	31.3%	42.5%	0.0%	100.0	160.536*** (df=30)
사립 유치원	2.8%	29.5%	11.0%	15.7%	40.9%	0.0%	100.0	
국공립 어린이집	3.5%	11.6%	44.2%	33.7%	5.8%	1.2%	100.0	
사립 어린이집	4.0%	18.2%	26.1%	33.0%	18.8%	0.0%	100.0	
취업 (학부모)	8.3%	16.7%	27.8%	25.0%	22.2%	0.0%	100.0	
자영업 (학부모)	0.0%	0.0%	16.7%	50.0%	33.3%	0.0%		
전업주부 (학부모)	14.0%	20.0%	34.0%	14.0%	18.0%	0.0%	100.0	
전체	4.0%	20.8%	20.4%	25.3%	29.4%	.1%		

***: p<.001

8) 통합 시 교사의 자격기준

가) 전체대상

통합 시 교사의 자격기준은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이 25.8%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45> 통합 시 교사의 자격기준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210	27.9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24	3.2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	194	25.8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자격으로 분리	279	37.1
기타	45	6.0
결측값	2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자격기준 분석

연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분석한 결과, 30대, 50대, 60대 이상은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자격으로 분리가 각각 52.7%, 53.3%,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대는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46> 연령과 자격기준 분석 (단위: %)

연령	자격 기준					x ²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 자격으로 분리	합계	
20대	46.7%	3.7%	12.1%	37.4%	100.0	44.893*** (df=12)
30대	24.0%	3.9%	19.4%	52.7%	100.0	
40대	30.1%	2.2%	37.5%	30.1%	100.0	
50대	24.4%	1.1%	21.1%	53.3%	100.0	
60대 이상	16.7%	0.0%	16.7%	66.7%	100.0	
전체	31.0%	2.8%	23.3%	42.9%	100.0	

***: p<.001

다) 전공과 자격기준

전공에 따른 자격기준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학, 보육교사교육원은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자격으로 분리가 각각 39.1%,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학, 아동학, 사회복지학은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이 각각 84.6%, 44.4%,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47> 전공과 자격기준 분석 (단위: %)

전공	자격 기준						x ²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 자격으로 분리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33.2%	1.7%	17.7%	39.1%	8.2%	100.0	120.916*** (df=32)
보육학	0.0%	7.7%	84.6%	7.7%	0.0%	100.0	
아동학	13.3%	4.4%	44.4%	35.6%	2.2%	100.0	
보육교사교육원	6.3%	6.3%	40.6%	46.9%	0.0%	100.0	
사회복지학	13.2%	7.5%	50.9%	28.3%	0.0%	100.0	
기타	26.1%	8.7%	30.4%	34.8%	0.0%	100.0	
전체	27.8%	2.8%	25.7%	37.4%	6.3%	100.0	

***: p<.001

라) 경력과 자격기준

경력에 따른 자격기준을 분석한 결과, 10년미만, 20년 이상, 없음(학부모)은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자격으로 분리가 각각 43.5%, 43.1%,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5년미만, 20년미만은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이 각각 41.4%,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 미만은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자격으로 분리와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이 29.8% 같음을 알 수 있다.

<표 IV-48> 경력과 자격기준 분석

(단위: %)

경력	자격 기준						x ²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 자격으로 분리	기타	합계	
5년 미만	29.8%	3.2%	19.1%	29.8%	18.1%	100.0	102.591*** (df=20)
5년 이상 ~10년 미만	26.5%	4.1%	21.2%	43.5%	4.7%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23.3%	2.6%	41.4%	31.9%	.9%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29.2%	0.0%	36.9%	32.3%	1.5%	100.0	
20년 이상	31.3%	1.4%	23.6%	43.1%	.7%	100.0	
없음	34.8%	8.7%	13.0%	43.5%	0.0%		
전체	28.5%	3.0%	25.2%	37.0%	6.2%	100.0	

***: p<.001

마) 근무형태와 자격기준

근무형태에 따른 자격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취업(학부모), 자영업(학부모), 전업주부(학부모)는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자격으로 분리가 각각 57.5%, 38.4%, 41.7%, 66.7%,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은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이 각각 62.8%, 49.4%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IV-49> 근무형태와 자격기준 분석

(단위: %)

근무	자격 기준						χ ²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 자격으로 분리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35.1%	2.2%	5.2%	57.5%	0.0%	100.0	283.575*** (df=24)
사립 유치원	34.9%	1.6%	7.8%	38.4%	17.3%	100.0	
국공립 어린이집	19.8%	4.7%	62.8%	12.8%	0.0%	100.0	
사립 어린이집	18.8%	3.4%	49.4%	27.8%	.6%	100.0	
취업(학부모)	33.3%	0.0%	25.0%	41.7%	0.0%	100.0	
자영업(학부모)	16.7%	0.0%	16.7%	66.7%	0.0%		
전업주부(학부모)	22.0%	10.0%	22.0%	46.0%	0.0%	100.0	
전체	28.3%	3.0%	25.4%	37.3%	6.1%		

***: p<.001

9) 통합 시 교사 자격의 구분

가) 전체대상

통합 시 교사 자격의 구분은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은 24.8%, 근무시간에 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 후 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은 24.7%순이었다.

<표 IV-50> 통합 시 교사 자격의 구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	262	35.0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	186	24.8
근무시간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	185	24.7
구분할 필요가 없음	68	9.1
기타	48	6.4
결측값	5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자격구분

연령에 따른 자격구분을 분석한 결과,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이 각각 52.3%, 33.8%, 37.8%,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대는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이 38.7%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IV-51> 연령과 자격구분 분석

(단위: %)

연령	자격 구분					x ²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	근무시간에 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	구분할 필요가 없음	합계	
20대	27.4%	38.7%	29.2%	4.7%	100.0	36.978*** (df=12)
30대	52.3%	14.8%	21.1%	11.7%	100.0	
40대	33.8%	30.1%	22.8%	13.2%	100.0	
50대	37.8%	27.8%	24.4%	10.0%	100.0	
60대 이상	66.7%	0.0%	0.0%	33.3%	100.0	
전체	38.6%	27.0%	23.8%	10.5%	100.0	

***: p<.001

다) 전공과 자격구분

전공에 따른 자격구분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학, 보육학, 아동학, 보육교사교육원은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이 각각 33.4%, 30.8%, 37.8%,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복지학은 근무시간에 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 후 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이 37.7%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IV-52> 전공과 자격구분 분석

(단위: %)

전공	자격 구분						x ²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	근무시간에 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	구분할 필요가 없음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33.4%	27.6%	22.3%	7.7%	9.0%	100.0	57.735** (df=32)
보육학	30.8%	23.1%	23.1%	23.1%	0.0%	100.0	
아동학	37.8%	17.8%	31.1%	13.3%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40.6%	18.8%	18.8%	21.9%	0.0%	100.0	
사회복지학	34.0%	15.1%	37.7%	13.2%	0.0%	100.0	
기타	43.5%	26.1%	26.1%	4.3%	0.0%	100.0	
전체	34.1%	25.2%	24.8%	9.1%	6.7%	100.0	

** : p<.01

라) 경력과 자격구분

경력에 따른 자격 구분을 분석한 결과, 10년 미만, 15년미만, 20년 이상, 없음(학부모)는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이 각각 37.9%, 34.8%,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년 미만은 근무시간에 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이 26.7%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20년 미만은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과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이 29.2%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53> 경력과 자격구분 분석

(단위: %)

경력	자격 구분						χ ²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	근무시간에 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	구분할 필요가 없음	기타	합계	
5년 미만	24.1%	25.1%	26.7%	5.9%	18.2%	100.0	96.292*** (df=32)
5년~10년 미만	37.9%	24.9%	21.9%	8.9%	6.5%	100.0	
10년~15년미만	34.8%	24.3%	25.2%	14.8%	.9%	100.0	
15년~20년 미만	29.2%	29.2%	26.2%	13.8%	1.5%	100.0	
20년 이상	38.2%	27.1%	27.1%	6.9%	.7%	100.0	
없음	67.4%	10.9%	10.9%	10.9%	0.0%	100.0	
전체	35.0%	24.8%	24.4%	9.2%	6.6%	100.0	

***: p<.001

마) 근무와 자격구분

근무에 따른 자격 구분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학부모는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근무시간에 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54> 근무와 자격구분 분석

(단위: %)

근무	자격 구분						χ ²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	근무시간에 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	구분할 필요가 없음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54.5%	20.9%	17.9%	6.7%	0.0%	100.0	176.379*** (df=24)
사립 유치원	28.5%	27.7%	19.4%	5.5%	19.0%	100.0	
국공립 어린이집	11.6%	31.4%	45.3%	11.6%	0.0%	100.0	
사립 어린이집	33.7%	22.3%	30.3%	13.7%	0.0%	100.0	
취업(학부모)	38.9%	22.2%	19.4%	19.4%	0.0%	100.0	
자영업(학부모)	83.3%	16.7%	0.0%	0.0%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54.0%	20.0%	20.0%	6.0%	0.0%	100.0	
전체	35.1%	24.7%	24.6%	9.1%	6.5%	100.0	

***: p<.001

10) 통합 시 교사 자격체계 및 직위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교사 자격체계 및 직위는 정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과 같음)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원장(현행 3급 폐지)이 21.9%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55> 통합 시 교사 자격체계 및 직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정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과 같음)	179	23.9
보조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원장	129	17.2
정교사 수습기간(3급,1년)-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	57	7.6
정교사 수습기간(3급,1년)-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원장	155	20.7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 3급 폐지)	66	8.8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원장(현행 3급 폐지)	164	21.9
결측값	4	-
합계	754	100.0

나) 경력과 교사직위

경력과 교사직위를 분석한 결과,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은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 원장(현행 3급 폐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년미만은 정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과 같음)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6> 경력과 교사직위 분석 (단위: %)

경력	교사 직위							x ²
	정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과 같음)	보조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원장	정교사 수습기간(3급,1년)-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	정교사 수습기간(3급,1년)-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원장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 3급 폐지)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원장(현행 3급 폐지)	합계	
5년 미만	30.9%	15.4%	5.9%	13.3%	13.8%	20.7%	100.0	66.121*** (df=25)
5년~10년 미만	24.9%	14.8%	10.7%	13.6%	9.5%	26.6%	100.0	
10년~15년미만	17.4%	16.5%	3.5%	33.9%	7.8%	20.9%	100.0	
15년~20년 미만	16.9%	10.8%	13.8%	27.7%	4.6%	26.2%	100.0	
20년 이상	20.8%	20.1%	6.9%	21.5%	6.3%	24.3%	100.0	
없음	21.7%	34.8%	6.5%	26.1%	2.2%	8.7%	100.0	
전체	23.5%	17.2%	7.6%	20.4%	8.8%	22.6%	100.0	

***: p<.001

다) 근무와 교사직위

근무와 교사직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취업(학부모), 자영업(학부모)는 정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과 같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은 정교사 수습기간(3급,1년)-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원장이 각각 32.6%, 2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은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 -원장(현행 3급 폐지)도 26.1%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57> 근무와 교사직위 분석

(단위: %)

근무	교사 직위							x2
	정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과 같음)	보조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원장	정교사 수습기간(3급,1년)-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	정교사 수습기간(3급,1년)-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원장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 3급 폐지)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원장(현행 3급 폐지)	합계	
국공립 유치원	26.1%	20.9%	8.2%	12.7%	6.0%	26.1%	100.0	
사립 유치원	25.6%	18.9%	5.5%	16.1%	11.0%	22.8%	100.0	
국공립 어린이집	16.3%	15.1%	8.1%	32.6%	8.1%	19.8%	100.0	
사립 어린이집	22.9%	10.3%	9.7%	26.3%	8.6%	22.3%	100.0	
취업(학부모)	25.0%	13.9%	11.1%	19.4%	8.3%	22.2%	100.0	
자영업(학부모)	33.3%	16.7%	16.7%	33.3%	0.0%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24.0%	30.0%	0.0%	26.0%	6.0%	14.0%	100.0	
전체	23.9%	17.3%	7.3%	20.8%	8.6%	22.1%		

46.427*
(df=30)

*: p<.05

11) 통합 시 교사 자격 취득방법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교사 자격 취득방법은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이 31.0%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8> 통합 시 교사 자격 취득방법

응답 구분	빈도 (N)	응답률 (%)
지금의 형태로 유지	101	13.4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	233	31.0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	289	38.5
양성교육기관종류(학점은행제,보육교사교육원,원격대학,일반대학)에 따른 자격을 급수로 나눔	83	11.1
기타	45	6.0
결측값	3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교사자격취득방법

연령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이 20대, 30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0대, 60대 이상은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9> 연령과 교사자격취득방법 분석

(단위: %)

연령	자격 취득					x ²
	지금의 형태로 유지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	양성교육기관의 종류(학점은행제,보육교사교육원,원격대학,일반대학)에 따른 자격을 급수로 나눔	합계	
20대	29.9%	23.4%	41.1%	5.6%	100.0	37.511*** (df=12)
30대	13.3%	32.8%	42.2%	11.7%	100.0	
40대	4.4%	36.0%	48.5%	11.0%	100.0	
50대	13.3%	40.0%	37.8%	8.9%	100.0	
60대 이상	16.7%	50.0%	33.3%	0.0%	100.0	
전체	14.6%	33.2%	42.8%	9.4%	100.0	

***: p<.001

다) 전공과 교사자격취득방법

전공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방법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학, 아동학, 보육교사교육원은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학, 사회복지학, 기타전공은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이 가장 높게 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60> 전공과 교사자격취득방법 분석

(단위: %)

전공	자격 취득						x ²
	지금의 형태로 유지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 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	양성교육기관의 종류(학점은행제,보육교사교육원,원 격대학,일반대학)에 따른 자격을 급수로 나눔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13.6%	28.7%	40.5%	8.8%	8.4%	100.0	57.244** (df=32)
보육학	7.7%	61.5%	15.4%	15.4%	0.0%	100.0	
아동학	13.3%	28.9%	46.7%	11.1%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18.8%	31.3%	37.5%	12.5%	0.0%	100.0	
사회복지학	11.3%	41.5%	32.1%	15.1%	0.0%	100.0	
기타	13.0%	39.1%	34.8%	13.0%	0.0%	100.0	
전체	13.2%	31.0%	39.0%	10.5%	6.3%	100.0	

** : p<.01

라) 경력과 교사자격취득방법

경력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방법을 분석한 결과,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 이상은은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없음(학부모)은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이 가장 높게 나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년 이상은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도 35.4%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V-61> 경력과 교사자격취득방법 분석

(단위: %)

경력	자격 취득						x ²
	지금의 형태로 유지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 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	양성교육기관의 종류(학점은행제,보육교사교 육원,원격대학,일반대학)에 따른 자격을 급수로 나눔	기타	합계	
5년 미만	20.2%	19.7%	34.6%	7.4%	18.1%	100.0	114.697*** (df=20)
5년~10년 미만	11.2%	31.4%	42.6%	10.1%	4.7%	100.0	
10년~15년미만	6.0%	37.1%	41.4%	13.8%	1.7%	100.0	
15년~20년미만	0.0%	35.4%	53.8%	9.2%	1.5%	100.0	
20년 이상	16.0%	35.4%	35.4%	13.2%	0.0%	100.0	
없음	30.4%	34.8%	23.9%	10.9%	0.0%	100.0	
전체	13.9%	30.6%	38.7%	10.6%	6.2%	100.0	

*** : p<.001

마) 근무와 교사자격취득방법

근무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방법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자영업(학부모), 전업주부(학부모)는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취업(학부모)는 대학교 학력(2년제, 3년제, 4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62> 근무와 교사자격취득방법 분석 (단위: %)

근무	자격 취득						x ²
	지금의 형태로 유지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 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	양성교육기관의 종류(학점은행제,보육교사교 육원,원격대학,일반대학)에 따른 자격을 급수로 나눔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15.7%	44.0%	32.1%	8.2%	0.0%	100.0	155.576*** (df=24)
사립 유치원	18.5%	20.1%	38.2%	5.9%	17.3%	100.0	
국공립 어린이집	2.3%	34.9%	36.0%	26.7%	0.0%	100.0	
사립 어린이집	9.1%	30.7%	47.7%	11.9%	.6%	100.0	
취업(학부모)	8.3%	38.9%	47.2%	5.6%	0.0%	100.0	
자영업(학부모)	16.7%	50.0%	16.7%	16.7%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18.0%	36.0%	28.0%	18.0%	0.0%	100.0	
전체	13.3%	30.9%	38.7%	11.1%	6.1%	100.0	

***: p<.001

12) 통합 시 교사 양성기관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교사 양성기관은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이 30.9%로 나타났다.

<표 IV-63> 통합 시 교사 양성기관

응답 구분	N	응답률(%)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교과목이수제와 학과이수제 병행)	90	12.0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132	17.6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253	33.7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232	30.9
기타	44	5.8
결측값	3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교사 양성기관

연령과 교사 양성기관을 분석한 결과,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은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대는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 (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50대는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33.3%로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와 같은 비율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교과목이수제 와 학과이수제 병행)가 모두 33.3%의 같은 비율을 보이는 특성을 보였다.

<표 IV-64> 연령과 교사 양성기관 분석

(단위: %)

연령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교과목이수제 와 학과이수제 병행)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합계	χ^2
20대	12.1%	13.1%	32.7%	42.1%	100.0	21.465* (df=12)
30대	15.6%	16.4%	34.4%	33.6%	100.0	
40대	9.6%	23.5%	41.9%	25.0%	100.0	
50대	6.7%	26.7%	33.3%	33.3%	100.0	
60대 이상	33.3%	0.0%	33.3%	33.3%	100.0	
전체	11.6%	19.5%	36.0%	33.0%	100.0	

*: $p < .05$

다) 전공과 교사 양성기관

전공과 교사 양성기관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학, 아동학, 보육교사교육원은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이 각각 34.8%, 28.9%,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학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46.2%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고, 사회복지학은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35.8%로 가장 높은 상대적 차이를 보였다.

<표 IV-65> 전공과 교사 양성기관 분석

(단위: %)

전공	양성기관						x ²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교과목이수제와 학과이수제 병행)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8.6%	15.1%	34.4%	33.8%	8.0%	100.0	79.642*** (df=40)
보육학	7.7%	23.1%	23.1%	46.2%	0.0%	100.0	
아동학	20.0%	24.4%	28.9%	26.7%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25.0%	31.3%	34.4%	9.4%	0.0%	100.0	
사회복지학	20.8%	35.8%	30.2%	13.2%	0.0%	100.0	
기타	30.4%	8.7%	21.7%	34.8%	4.3%		
전체	11.5%	17.6%	33.9%	30.9%	6.0%	100.0	

***: p<.001

라) 경력과 교사 양성기관

경력과 교사 양성기관을 분석한 결과, 15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없음(학부모)는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각각 39.7%, 46.2%, 38.9%,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년 미만, 10년미만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각각 28.9%,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년 이상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도 38.9%의 같은 비율을 보이는 특성을 나타냈다.

<표 IV-66> 경력과 교사 양성기관 분석

(단위: %)

경력	양성기관						x ²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교과목이수제와 학과이수제 병행)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기타	합계	
5년 미만	16.6%	11.8%	25.1%	28.9%	17.6%	100.0	99.978*** (df=25)
5년~10년미만	11.8%	15.9%	31.2%	36.5%	4.7%	100.0	
10년~15년	11.2%	24.1%	39.7%	23.3%	1.7%	100.0	
15년~20년	4.6%	20.0%	46.2%	27.7%	1.5%	100.0	
20년 이상	5.6%	16.7%	38.9%	38.9%	0.0%	100.0	
없음	19.6%	23.9%	34.8%	21.7%	0.0%	100.0	
전체	11.5%	17.2%	34.1%	31.2%	6.0%	100.0	

***: p<.001

마) 근무와 교사 양성기관

근무와 교사 양성기관을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전업주부(학부모)는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유치원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취업(학부모)는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가 33.3%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학부모)은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교과목이수제와 학과이수제 병행)가 66.7%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N-67> 근무와 교사 양성기관 분석

(단위: %)

근무	양성기관						x ²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교과목이수제와 학과이수제 병행)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기타	합계	
국공립유치원	5.2%	9.0%	29.9%	56.0%	0.0%	100.0	183.849*** (df=30)
사립유치원	9.0%	11.4%	32.9%	29.8%	16.9%	100.0	
국공립어린이집	12.8%	15.1%	44.2%	26.7%	1.2%	100.0	
사립어린이집	16.5%	29.5%	34.7%	19.3%	0.0%	100.0	
취업(학부모)	8.3%	33.3%	30.6%	27.8%	0.0%	100.0	
자영업(학부모)	66.7%	0.0%	33.3%	0.0%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22.4%	22.4%	32.7%	22.4%	0.0%	100.0	
전체	11.9%	17.4%	34.0%	30.9%	5.9%	100.0	

***: p<.001

13) 통합 시 현행 보육교사 3급 자격과 담당 직무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현행 보육교사 3급 자격과 담당 직무는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에 따라 2급 자격 취득 가능)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격 급수(3급)폐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과 관계없이 2급 자격 취득 불가)이 20.9%로 뒤를 이었다.

<표 IV-68> 통합 시 현행 보육교사 3급 자격과 담당 직무

응답 구분	빈도 (N)	응답률 (%)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급담임 배정	54	7.2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에 따라 2급 자격 취득 가능)	332	44.1
자격 급수(3급)폐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과 관계없이 2급 자격 취득 불가)	157	20.9
3급 자격 폐지,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 연수 등 기능 전환	81	10.8
보육교사 3급 자격 및 보육교사교육원 폐지	124	16.5
기타	4	.5
결측값	2	-
합 계	754	100.0

나) 경력과 보육 3급 자격

경력과 보육 3급에 대한 분석결과,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에 따라 2급 자격 취득 가능)가 경력 유무에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적 연구결과인 3급 자격 폐지,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 연수 등 기능 전환하자는 의견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표 IV-69> 경력과 보육 3급 자격 분석

(단위: %)

경력	보육 3급							x ²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급담임 배정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에 따라 2급 자격 취득 가능)	자격 급수(3급)폐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과 관계없이 2급 자격 취득 불가)	3급 자격 폐지,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 연수 등 기능 전환	보육교사 3급 자격 및 보육교사교육원 폐지	기타	합계	
5년 미만	11.7%	38.3%	28.2%	10.6%	10.6%	1.0%	100.0	59.822*** (df=25)
5년 ~10년	9.4%	44.7%	20.6%	10.6%	14.7%	0.0%	100.0	
10년~15년	3.4%	46.6%	12.9%	15.5%	20.7%	.9%	100.0	
15년~20년	4.6%	38.5%	15.4%	6.2%	35.4%	0.0%	100.0	
20년 이상	4.2%	43.8%	26.4%	9.7%	14.6%	1.4%	100.0	
없음	4.3%	60.9%	6.5%	13.0%	15.2%	0.0%	100.0	
전체	7.3%	43.6%	21.1%	11.0%	16.5%	.6%	100.0	

***: p<.001

14) 통합 시 교사의 처우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교사의 처우는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가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라가 13.0%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70> 통합 시 교사의 처우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교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53	7.1
교사가 돌보고 가르치는 연령(만 0세~5세)에 따라	25	3.3
최종학력(2년제, 3년제, 4년제, 석사, 박사)에 따라	38	5.1
경력에 따라	98	13.0
자격종별(1급, 2급 등)에 따라	34	4.5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	503	67.0
결측값	2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교사 처우

연령과 통합 시 교사의 처우를 분석한 결과,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60대 이상은 교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도 33.3%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71> 연령과 교사 처우 분석

(단위: %)

연령	교사처우							χ ²
	교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교사가 돌보고 가르치는 연령(만 0세~5세)에 따라	최종학력(2년제, 3년제, 4년제, 석사, 박사)에 따라	경력에 따라	자격종별(1급, 2급 등)에 따라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	합계	
20대	12.1%	8.4%	13.1%	14.0%	5.6%	46.7%	100.0	60.478*** (df=20)
30대	5.5%	4.7%	2.3%	9.4%	4.7%	73.4%	100.0	
40대	8.1%	2.9%	2.2%	11.0%	.7%	75.0%	100.0	
50대	2.2%	0.0%	3.3%	11.1%	5.6%	77.8%	100.0	
60대	33.3%	0.0%	0.0%	16.7%	16.7%	33.3%	100.0	
전체	7.5%	4.1%	4.9%	11.3%	4.1%	68.1%	100.0	

***: p<.001

다) 경력과 교사 처우

경력과 통합 시 교사의 처우를 분석한 결과,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이 모든 경력유무와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72> 경력과 교사 처우 분석

(단위: %)

경력	교사처우						합계	x ²
	교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교사가 돌보고 가르치는 연령(만 0세~5세)에 따라	최종학력(2년제, 3년제, 4년제, 석사, 박사)에 따라	경력에 따라	자격종별(1급, 2급 등)에 따라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		
5년 미만	10.6%	5.3%	10.6%	19.1%	5.3%	48.9%	100.0	63.267*** (df=25)
5년~10년	7.1%	3.6%	3.6%	15.4%	4.1%	66.3%	100.0	
10년~15년	4.3%	1.7%	4.3%	12.9%	3.4%	73.3%	100.0	
15년~20년	7.7%	4.6%	0.0%	3.1%	1.5%	83.1%	100.0	
20년 이상	4.9%	.7%	2.8%	9.0%	6.9%	75.7%	100.0	
없음	8.7%	6.5%	4.3%	6.5%	2.2%	71.7%	100.0	
전체	7.3%	3.4%	5.1%	13.0%	4.5%	66.6%		

***: p<.001

라) 근무와 교사 처우

근무와 통합 시 교사의 처우를 분석한 결과,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이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73> 근무와 교사 처우 분석

(단위: %)

근무	교사처우						합계	x ²
	교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교사가 돌보고 가르치는 연령(만 0세~5세)에 따라	최종학력(2년제, 3년제, 4년제, 석사, 박사)에 따라	경력에 따라	자격종별(1급, 2급 등)에 따라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		
국공립 유치원	4.5%	1.5%	5.2%	7.5%	3.7%	77.6%	100.0	64.652*** (df=30)
사립 유치원	6.3%	3.5%	7.9%	19.7%	6.3%	56.3%	100.0	
국공립 어린이집	4.7%	1.2%	3.5%	15.1%	4.7%	70.9%	100.0	
사립 어린이집	11.9%	5.7%	2.8%	10.2%	3.4%	65.9%	100.0	
취업(학부모)	8.3%	0.0%	2.8%	5.6%	2.8%	80.6%	100.0	
자영업(학부모)	0.0%	0.0%	0.0%	16.7%	33.3%	5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6.0%	6.0%	4.0%	6.0%	0.0%	78.0%		
전체	7.1%	3.4%	5.1%	13.1%	4.6%	66.7%		

***: p<.001

15) 통합 시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유형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유형은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지금의 형태로 유지가 20.5%를 보였다.

<표 IV-74> 통합 시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유형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지금의 형태로 유지	154	20.5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	328	43.7
부모의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립기관 설립 장려	119	15.8
지역 관계없이 동일서비스 제공하는 프랜차이즈형 형태 설립 장려	112	14.9
기타	38	5.1
결측값	3	-
합계	754	100.0

나) 전공과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

전공과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이 모든 전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75> 전공과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 분석

(단위: %)

전공	설립 유형						x ²
	지금의 형태로 유지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	부모의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립기관 설립 장려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형 형태로 설립 장려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22.2%	42.1%	16.1%	12.6%	7.1%	100.0	63.942** (df=32)
보육학	23.1%	61.5%	0.0%	15.4%	0.0%	100.0	
아동학	20.0%	51.1%	13.3%	15.6%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9.4%	50.0%	34.4%	6.3%	0.0%	100.0	
사회복지학	20.8%	37.7%	17.0%	24.5%	0.0%	100.0	
기타	8.7%	47.8%	17.4%	26.1%	0.0%	100.0	
전체	20.5%	43.2%	16.2%	14.8%	5.3%	100.0	

** : p<.01

다) 경력과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

경력과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이 모든 경력자와 경력이 없는 학부모에게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76> 경력과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 분석

(단위: %)

경력	설립유형						χ ²
	지금의 형태로 유지	모두 국·공립 으로 전환	부모의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립기관 설립 장려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형 형태로 설립 장려	기타	합계	
5년 미만	23.9%	37.2%	14.9%	10.1%	13.8%	100.0	60.897*** (df=20)
5년~10년	14.8%	47.9%	18.3%	14.8%	4.1%	100.0	
10년~15년	19.0%	46.6%	19.0%	13.8%	1.7%	100.0	
15년~20년	18.5%	46.2%	21.5%	12.3%	1.5%	100.0	
20년 이상	23.6%	42.4%	11.1%	21.5%	1.4%	100.0	
없음	30.4%	45.7%	10.9%	13.0%	0.0%	100.0	
전체	20.9%	43.5%	15.9%	14.4%	5.2%	100.0	

***: p<.001

라) 근무와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

근무와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이 모든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영업(학부모)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형 형태로 설립 장려도 50.0%로 같은 비율을 보이는 특성을 보였다.

<표 IV-77> 근무와 새로운 기관 설립 유형 분석

(단위: %)

근무	설립유형						χ ²
	지금의 형태로 유지	모두 국·공립 전환	부모의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립기관 설립 장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형 형태로 설립 장려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29.9%	53.0%	3.7%	11.9%	1.5%	100.0	167.285*** (df=24)
사립 유치원	23.6%	33.1%	19.7%	9.8%	13.8%	100.0	
국공립어린이집	8.1%	44.2%	7.0%	40.7%	0.0%	100.0	
사립 어린이집	15.3%	49.4%	24.4%	10.2%	.6%	100.0	
취업(학부모)	22.2%	50.0%	19.4%	8.3%	0.0%	100.0	
자영업(학부모)	0.0%	50.0%	0.0%	50.0%	0.0%	100.0	
전업주부	22.0%	50.0%	14.0%	14.0%	0.0%	100.0	
전체	20.6%	43.9%	15.9%	14.4%	5.1%	100.0	

***: p<.001

16)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시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기준

가) 전체 대상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시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기준은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은 30.1% 순이었다.

<표 IV-78>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시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환기준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기존 기관은 모두 전환	74	9.9
신청 기관은 모두 전환	54	7.2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226	30.1
시설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65	8.7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	282	37.6
기타	49	6.5
결측값	4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전환기준

연령과 전환기준을 분석한 결과,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이 모든 구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79> 연령과 전환기준 분석

(단위: %)

연령	전환기준						x ²
	기존 기관은 모두 전환	신청 기관은 모두 전환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시설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	합계	
20대	15.0%	12.1%	23.4%	12.1%	37.4%	100.0	30.859* (df=16)
30대	9.4%	2.4%	30.7%	3.9%	53.5%	100.0	
40대	8.8%	7.4%	37.5%	5.1%	41.2%	100.0	
50대	7.8%	3.3%	30.0%	6.7%	52.2%	100.0	
60대 이상	0.0%	0.0%	33.3%	16.7%	50.0%	100.0	
전체	10.1%	6.2%	30.9%	6.9%	45.9%	100.0	

*: p<.05

다) 전공과 전환기준

전공과 전환기준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학, 아동학, 보육교사교육원은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이 각각 40.8%, 37.8%,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학, 사회복지학은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이 각각 38.5%,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기타전공은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과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이 30.4%로 같은 비율을 보이는 특성을 보였다.

<표 IV-80> 전공과 전환기준 분석

(단위: %)

전공	전환기준							x ²
	기준 기관은 모두 전환	신청 기관은 모두 전환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시설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7.7%	5.7%	29.5%	7.5%	40.8%	8.8%	100.0	68.797** (df=40)
보육학	15.4%	7.7%	38.5%	15.4%	23.1%	0.0%	100.0	
아동학	11.1%	8.9%	24.4%	17.8%	37.8%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12.5%	9.4%	28.1%	3.1%	46.9%	0.0%	100.0	
사회복지학	18.9%	11.3%	32.1%	11.3%	24.5%	1.9%	100.0	
기타	17.4%	8.7%	30.4%	13.0%	30.4%	0.0%	100.0	
전체	9.5%	7.3%	29.5%	8.5%	38.5%	6.7%	100.0	

** : p<.01

라) 경력과 전환기준

경력과 전환기준을 분석한 결과, 경력의 모든 구분에서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81> 경력과 전환기준 분석

(단위: %)

경력	전환기준							x ²
	기준 기관은 모두 전환	신청 기관은 모두 전환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시설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	기타	합계	
5년 미만	10.7%	8.6%	24.6%	8.6%	29.4%	18.2%	100.0	74.735*** (df=25)
5년~10년	10.7%	5.9%	26.6%	8.3%	41.4%	7.1%	100.0	
10년~15년	10.3%	10.3%	35.3%	5.2%	37.9%	.9%	100.0	
15년~20년	9.2%	6.2%	32.3%	6.2%	43.1%	3.1%	100.0	
20년 이상	7.6%	6.9%	31.9%	10.4%	43.1%	0.0%	100.0	
없음	13.0%	2.2%	34.8%	6.5%	43.5%	0.0%	100.0	
전체	10.0%	7.3%	29.6%	8.0%	38.4%	6.7%	100.0	

*** : p<.001

마) 근무와 전환기준

근무와 전환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전업주부(학부모)는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이 각각 67.2%, 33.9%, 32.4%,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취업(학부모), 자영업(학부모)은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이 각각 41.9%, 50.0%,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82> 근무와 전환기준 분석

(단위: %)

근무	전환기준							x ²
	기존 기관은 모두 전환	신청 기관은 모두 전환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시설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	기타	합계	
국공립유치원	3.7%	1.5%	23.9%	3.7%	67.2%	0.0%	100.0	208.477*** (df=30)
사립유치원	8.3%	5.9%	25.6%	7.9%	33.9%	18.5	100.0	
국공립어린이집	17.4%	19.8%	41.9%	5.8%	15.1%	0.0%	100.0	
사립어린이집	14.8%	10.2%	29.0%	13.1%	32.4%	.6%	100.0	
취업(학부모)	0.0%	0.0%	50.0%	8.3%	41.7%	0.0%	100.0	
자영업(학부모)	0.0%	0.0%	83.3%	16.7%	0.0%	0.0%	100.0	
전업주부	14.3%	4.1%	30.6%	10.2%	38.8%	2.0%	100.0	
전체	10.0%	7.3%	30.0%	8.4%	37.8%	6.6%	100.0	

***: p<.001

17) 통합 시 정규교육과 보육의 적정 시간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정규교육과 보육의 적정 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는 18.0%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83> 통합 시 정규교육과 보육의 적정 시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	321	42.7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	135	18.0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시간제	70	9.3
통합된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맡김	108	14.4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종일제를, 비 지원시설은 자율에 맡김	77	10.3
기타	40	5.3
결측값	3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적정 시간

연령과 적정 시간을 분석한 결과, 20대, 30대, 40대, 50대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84> 연령과 적정 시간 분석

(단위: %)

연령	적정 시간						x ²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시간제	통합된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맞김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종일제를, 비 지원시설은 자율에 맞김	합계	
20대	57.0%	17.8%	2.8%	16.8%	5.6%	100.0	28.134* (df=16)
30대	40.6%	17.2%	13.3%	12.5%	16.4%	100.0	
40대	44.1%	21.3%	6.6%	16.9%	11.0%	100.0	
50대	38.9%	20.0%	13.3%	21.1%	6.7%	100.0	
60대	16.7%	33.3%	16.7%	16.7%	16.7%	100.0	
전체	44.8%	19.3%	9.0%	16.5%	10.5%	100.0	

*: p<.05

다) 전공과 적정 시간

전공과 적정 시간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학, 아동학, 기타 전공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이 각각 47.6%, 31.1%,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학, 보육교사교육원은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가 각각 30.8%,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학은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가 28.3%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85> 전공과 적정 시간 분석

(단위: %)

전공	적정 시간							x ²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시간제	통합된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맞김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종일제를, 비 지원시설은 자율에 맞김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47.6%	14.9%	8.4%	12.8%	9.0%	7.3%	100.0	78.783*** (df=40)
보육학	23.1%	30.8%	0.0%	30.8%	15.4%	0.0%	100.0	
아동학	31.1%	24.4%	15.6%	8.9%	20.0%	0.0%	100.0	
보육교육원	25.0%	34.4%	3.1%	25.0%	12.5%	0.0%	100.0	
사회복지학	28.3%	28.3%	11.3%	20.8%	11.3%	0.0%	100.0	
기타	39.1%	21.7%	0.0%	17.4%	17.4%	4.3%	100.0	
전체	43.1%	18.1%	9.0%	14.1%	10.2%	5.5%	100.0	

***: p<.001

라) 경력과 적정 시간

경력과 적정 시간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이 경력이 있는 모든 경력구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력이 없는 학부모는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와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시간제가 26.1%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IV-86> 경력과 적정 시간 분석

(단위: %)

경력	적정 시간							x ²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시간제	통합된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맡김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종일제를, 비 지원시설은 자율에 맡김	기타	합계	
5년 미만	45.2%	15.4%	3.2%	14.4%	8.5%	13.3%	100.0	88.200*** (df=25)
5년~10년	50.9%	16.0%	5.9%	14.2%	7.7%	5.3%	100.0	
10년~15년	41.4%	23.3%	11.2%	11.2%	10.3%	2.6%	100.0	
15년~20년	32.3%	21.5%	10.8%	12.3%	20.0%	3.1%	100.0	
20년 이상	45.1%	14.6%	13.9%	18.8%	6.9%	.7%	100.0	
없음	23.9%	26.1%	26.1%	8.7%	15.2%	0.0%	100.0	
전체	43.4%	17.9%	9.3%	14.1%	9.8%	5.5%	100.0	

***: p<.001

마) 근무와 적정 시간

근무와 적정 시간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전업주부(학부모)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학부모)은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이 25.0%로 가장 높고, 자영업(학부모)은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시간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87> 근무와 적정 시간 분석

(단위: %)

근무	적정 시간							χ ²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시간제	통합된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맞춤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종일제를, 비 지원시설은 자율에 맞춤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48.5%	17.9%	14.9%	11.9%	6.7%	0.0%	100.0	152.640*** (df=30)
사립 유치원	51.2%	10.6%	4.7%	12.6%	6.3%	14.6%	100.0	
국공립 어린이집	33.7%	23.3%	15.1%	19.8%	7.0%	1.2%	100.0	
사립 어린이집	40.9%	23.3%	4.0%	16.5%	14.2%	1.1%	100.0	
취업(학부모)	16.7%	25.0%	19.4%	16.7%	22.2%	0.0%	100.0	
자영업(학부모)	16.7%	0.0%	50.0%	0.0%	33.3%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28.0%	24.0%	14.0%	14.0%	20.0%	0.0%	100.0	
전체	42.7%	17.9%	9.3%	14.4%	10.2%	5.4%	100.0	

***: p<.001

18) 통합 시 교육 및 보육비용의 부담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교육 및 보육비용의 부담은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차등부담이 28.1%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88> 통합 시 교육 및 보육비용의 부담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국가가 전액 부담	150	20.0
학부모가 전액 부담	8	1.1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	327	43.6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차등부담	211	28.1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국가도 일부 부담	17	2.3
기타	37	4.9
결측값	3	-
합계	754	100.0

나) 연령과 비용부담

연령과 비용부담을 분석한 결과,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이 모든 구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89> 연령과 비용부담 분석

(단위: %)

연령	비용부담						χ ²
	국가가 전액 부담	학부모가 전액 부담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차등부담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국가도 일부 부담	합계	
20대	23.4%	2.8%	41.1%	27.1%	5.6%	100.0	29.532* (df=16)
30대	27.3%	.8%	39.8%	31.3%	.8%	100.0	
40대	14.0%	.7%	44.1%	41.2%	0.0%	100.0	
50대	16.7%	0.0%	46.7%	35.6%	1.1%	100.0	
60대	33.3%	0.0%	50.0%	16.7%	0.0%	100.0	
전체	20.6%	1.1%	42.8%	33.8%	1.7%	100.0	

*: p<.05

다) 경력과 비용부담

경력과 비용부담을 분석한 결과,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이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없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5년 미만은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차등부담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90> 경력과 비용부담 분석

(단위: %)

경력	비용부담						χ ²	
	국가가 전액 부담	학부모가 전액 부담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차등부담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국가도 일부 부담	기타		합계
5년 미만	16.7%	1.6%	43.5%	21.5%	2.7%	14.0%	100.0	67.746*** (df=25)
5년~10년 미만	19.4%	1.2%	44.7%	26.5%	2.9%	5.3%	100.0	
10년~15년미만	19.0%	0.0%	38.8%	41.4%	0.0%	.9%	100.0	
15년~20년 미만	15.4%	1.5%	44.6%	33.8%	3.1%	1.5%	100.0	
20년 이상	23.6%	1.4%	45.1%	27.1%	2.8%	0.0%	100.0	
없음	28.3%	0.0%	39.1%	32.6%	0.0%	0.0%	100.0	
전체	19.7%	1.1%	43.2%	28.7%	2.2%	5.1%	100.0	

***: p<.001

라) 근무와 비용부담

근무와 비용부담을 분석한 결과,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이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취업(학부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영업(학부모), 전업주부(학부모)는 국가가 전액부담이 각각 50.0%,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91> 근무와 비용부담 분석

(단위: %)

근무	비용부담							x ²
	국가가 전액 부담	학부모가 전액 부담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부담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국가도 일부 부담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27.6%	.7%	41.8%	27.6%	2.2%	0.0%	100.0	119.400*** (df=30)
사립 유치원	21.6%	1.2%	36.9%	23.1%	2.7%	14.5%	100.0	
국공립 어린이집	11.6%	2.3%	50.0%	32.6%	3.5%	0.0%	100.0	
사립 어린이집	9.1%	1.1%	53.7%	34.3%	1.7%	0.0%	100.0	
취업(학부모)	22.2%	0.0%	41.7%	36.1%	0.0%	0.0%	100.0	
자영업(학부모)	50.0%	0.0%	33.3%	16.7%	0.0%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38.8%	0.0%	32.7%	26.5%	2.0%	0.0%	100.0	
전체	20.0%	1.1%	43.2%	28.5%	2.3%	5.0%	100.0	

***: p<.001

19) 통합시 정부의 우선 지원 사항

가) 전체 대상

통합시 정부의 우선 지원 사항은 인건비 지원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교육비 지원이 22.5%로 나타났다.

<표 IV-92> 통합시 정부의 우선 지원 사항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기관의 시설 및 설비 지원	73	9.8
교육비 지원	167	22.5
교재교구 지원	9	1.2
인건비 지원	376	50.6
운영비 지원	61	8.2
교사 연수비 지원	19	2.6
기타	38	5.1
결측값	11	-
합계	754	100.0

나) 경력과 우선 지원 사항

경력과 우선 지원 사항을 분석한 결과,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은 인건비 지원이 각각 46.2%, 56.3%, 59.1%, 59.4%,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없음(학부모)은 교육비 지원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93> 경력과 우선 지원 사항 분석 (단위: %)

경력	우선 지원								χ ²
	기관의 시설 및 설비 지원	교육비 지원	교재교구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교사 연수비 지원	기타	합계	
5년 미만	9.7%	18.8%	1.1%	46.2%	4.3%	5.9%	14.0%	100.0	98.620*** (df=30)
5년 이상~10년 미만	8.4%	16.8%	1.2%	56.3%	9.0%	3.0%	5.4%	100.0	
10년이상~15년미만	8.7%	19.1%	.9%	59.1%	9.6%	1.7%	.9%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4.7%	17.2%	3.1%	59.4%	12.5%	1.6%	1.6%	100.0	
20년 이상	11.1%	27.8%	1.4%	49.3%	9.7%	0.0%	.7%	100.0	
없음	15.2%	50.0%	0.0%	26.1%	8.7%	0.0%	0.0%	100.0	
전체	9.4%	22.0%	1.2%	51.1%	8.3%	2.6%	5.3%	100.0	

***: p<.001

다) 근무와 우선 지원 사항

근무와 우선 지원 사항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취업(학부모), 전업주부(학부모)는 교육비 지원이 각각 42.5%, 37.1%,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자영업(학부모)는 인건비 지원이 각각 51.6%, 78.8%, 65.7%,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94> 근무와 우선 지원 사항 분석 (단위: %)

근무	우선 지원								χ ²
	기관의 시설 및 설비 지원	교육비 지원	교재교구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교사 연수비 지원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20.1%	42.5%	2.2%	24.6%	8.2%	1.5%	.7%	100.0	248.783*** (df=36)
사립 유치원	5.1%	18.5%	.8%	51.6%	3.9%	5.5%	14.6%	100.0	
국공립 어린이집	7.1%	9.4%	2.4%	78.8%	2.4%	0.0%	0.0%	100.0	
사립 어린이집	7.6%	8.7%	.6%	65.7%	16.3%	1.2%	0.0%	100.0	
취업(학부모)	20.0%	37.1%	0.0%	34.3%	8.6%	0.0%	0.0%	100.0	
자영업(학부모)	0.0%	16.7%	0.0%	83.3%	0.0%	0.0%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10.4%	50.0%	2.1%	25.0%	10.4%	2.1%	0.0%	100.0	
전체	9.7%	22.5%	1.2%	50.8%	8.0%	2.6%	5.2%	100.0	

***: p<.001

20) 통합 시 가장 중요한 점검 부분

가) 전체 대상

통합 시 가장 중요한 점검 부분은 교육과정이 37.4%로 가장 높았고 교사관리(자격, 처우, 복지 등)가 31.7% 순이었다.

<표 IV-95> 통합 시 가장 중요한 점검 부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교육과정	280	37.4
재무회계	100	13.4
원아관리	92	12.3
문서관리	1	.1
교사관리(자격,처우,복지등)	237	31.7
기타	38	5.1
결측값	6	-
합 계	754	100.0

나) 연령과 점검사항

연령에 따른 점검사항을 분석한 결과,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은 교육과정이 각각 35.4%, 39.0%, 41.1%,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대는 교사관리(자격,처우,복지 등)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96> 연령과 점검사항 분석

(단위: %)

연령	점검 사항						x ²
	교육과정	재무회계	원아관리	문서관리	교사관리 (자격,처우,복지등)	합계	
20대	30.8%	12.1%	10.3%	.9%	45.8%	100.0	29.990* (df=16)
30대	35.4%	15.7%	15.0%	0.0%	33.9%	100.0	
40대	39.0%	18.4%	17.6%	0.0%	25.0%	100.0	
50대	41.1%	24.4%	12.2%	0.0%	22.2%	100.0	
60대	83.3%	16.7%	0.0%	0.0%	0.0%	100.0	
전체	37.1%	17.4%	13.9%	.2%	31.3%	100.0	

*: p<.05

다) 경력과 점검사항

경력에 따른 점검사항을 분석한 결과, 5년미만, 10년미만, 없음(학부모)은

교사관리(자격,처우,복지등)가 각각 38.2%, 38.5%,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은 교육과정이 각각 44.0%, 47.7%,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97> 경력과 점검사항 분석 (단위: %)

경력	점검 사항							x2
	교육과정	재무회계	원아관리	문서관리	교사관리	기타	합계	
5년 미만	26.9%	8.1%	11.8%	.5%	38.2%	14.5%	100.0	131.085*** (df=25)
5년 이상~10년 미만	33.1%	13.6%	9.5%	0.0%	38.5%	5.3%	100.0	
10년이상~15년미만	44.0%	12.9%	9.5%	0.0%	32.8%	.9%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47.7%	21.5%	12.3%	0.0%	16.9%	1.5%	100.0	
20년 이상	54.9%	19.4%	6.3%	0.0%	19.4%	0.0%	100.0	
없음	21.7%	10.9%	37.0%	0.0%	30.4%	0.0%	100.0	
전체	38.2%	13.8%	11.4%	.1%	31.3%	5.2%		

***: p<.001

라) 근무와 점검사항

근무에 따른 점검사항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취업(학부모)은 교육과정이 각각 37.3%, 52.3%, 48.0%, 31.4%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교사관리(자격,처우,복지등)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학부모), 전업주부(학부모)는 원아관리가 각각 50.0%,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98> 근무와 점검사항 분석 (단위: %)

근무	점검 사항							x2
	교육과정	재무회계	원아관리	문서관리	교사관리 (자격,처우,복지등)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37.3%	29.9%	9.0%	0.0%	23.9%	0.0%	100.0	179.220*** (df=30)
사립 유치원	31.1%	5.9%	11.0%	.4%	37.0%	14.6%	100.0	
국공립 어린이집	52.3%	14.0%	7.0%	0.0%	25.6%	1.2%	100.0	
사립 어린이집	48.0%	13.1%	8.6%	0.0%	30.3%	0.0%	100.0	
취업(학부모)	31.4%	14.3%	28.6%	0.0%	25.7%	0.0%	100.0	
자영업(학부모)	0.0%	16.7%	50.0%	0.0%	33.3%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16.3%	8.2%	36.7%	0.0%	38.8%	0.0%		
전체	37.5%	13.5%	12.4%	.1%	31.3%	5.1%		

***: p<.001

다. 국가의 의무 교육화 필요성 및 연령 범위

1) 국가의 의무 교육화 필요성

가) 전체 대상

국가의 의무 교육화 필요성은 긍정률(‘필요’)이 53.4%로 부정률(‘필요없음’) 35.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국가의무 교육화 필요정도는 평균 3.34로 나타났다.

<표 IV-99> 국가의 의무 교육화 필요성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필요 없음	180	23.9
별로 필요 없음	85	11.3
보통	86	11.4
약간 필요	106	14.1
매우 필요	296	39.3
결측값	1	-
합 계	754	100.0

<표 IV-100>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국가의무 교육화 필요정도	754	3.34	1.635

2) 의무교육 연령범위

가) 전체 대상

의무교육 연령범위는 만3~5세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만0~5세가 27.4%로 나타났다.

<표 IV-101> 의무교육 연령범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만 0~5세	173	27.4
만 1~5세	22	3.5
만 2~5세	65	10.3
만 3~5세	299	47.3
만 4~5세	71	11.2
기타	2	.3
결측값	122	-
합 계	754	100.0

나) 경력과 의무교육 연령범위

경력에 따른 연령범위를 분석한 결과,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은 만 3~5세가 각각 58.6%, 53.3%, 47.3%, 33.3%,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없음(학부모)은 만 3~5세와 만 0~5세가 40.5%로 같은 비유를 보이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102> 경력과 의무교육 연령범위 분석

(단위: %)

경력	연령 범위							x ²
	만 0~5세	만 1~5세	만 2~5세	만 3~5세	만 4~5세	기타	합계	
5년 미만	20.0%	6.9%	6.2%	58.6%	7.6%	.7%	100.0	49.498** (df=25)
5년 이상~10년 미만	28.7%	3.3%	6.7%	53.3%	7.3%	.7%	100.0	
10년이상~15년미만	24.7%	2.2%	17.2%	47.3%	8.6%	0.0%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28.1%	1.8%	19.3%	33.3%	17.5%	0.0%	100.0	
20년 이상	32.5%	2.4%	11.1%	37.3%	16.7%	0.0%	100.0	
없음	40.5%	2.4%	7.1%	40.5%	9.5%	0.0%	100.0	
전체	27.6%	3.6%	10.3%	47.6%	10.6%	.3%		

** : p<.01

다) 근무와 의무교육 연령범위

근무에 따른 연령범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취업(학부모), 전업주부(학부모)는 만 3~5세가 각각 45.6%, 61.3%, 42.3%, 48.3%,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립어린이집은 만 3~5세와 만 0~5세가 36.3%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자영업(학부모)은 만 0~5세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103> 근무와 의무교육 연령범위 분석

(단위: %)

근무	연령 범위							x ²
	만 0~5세	만 1~5세	만 2~5세	만 3~5세	만 4~5세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26.3%	1.8%	6.1%	45.6%	20.2%	0.0%	100.0	52.482** (df=30)
사립 유치원	20.1%	2.5%	7.5%	61.3%	8.0%	.5%	100.0	
국공립 어린이집	26.9%	3.8%	14.1%	42.3%	11.5%	1.3%	100.0	
사립 어린이집	36.3%	5.1%	14.0%	36.3%	8.3%	0.0%	100.0	
취업(학부모)	20.7%	3.4%	17.2%	48.3%	10.3%	0.0%	100.0	
자영업(학부모)	50.0%	0.0%	0.0%	33.3%	16.7%	0.0%	100.0	
전업주부(학부모)	33.3%	6.7%	8.9%	37.8%	13.3%	0.0%		
전체	27.4%	3.5%	10.2%	47.3%	11.3%	.3%		

** : p<.01

라. 신뢰도 높은 기관

1) 전체 대상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은 25.2%, 국공립어린이집은 1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4> 신뢰도 높은 기관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국공립 유치원	390	52.3
사립 유치원	188	25.2
국공립 어린이집	117	15.7
사립 어린이집	43	5.8
기타	8	1.1
결측값	8	-
합 계	754	100.0

2) 연령과 신뢰도 높은 기관

연령과 신뢰도 기관을 분석한 결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은 국공립 유치원이 각각 49.5%, 59.4%, 47.8%, 71.1%,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05> 연령과 신뢰도 높은 기관 분석

(단위: %)

연령	신뢰도					x ²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합계	
20대	49.5%	45.8%	3.7%	.9%	100.0	66.495*** (df=12)
30대	59.4%	27.3%	7.8%	5.5%	100.0	
40대	47.8%	19.1%	22.1%	11.0%	100.0	
50대	71.1%	11.1%	15.6%	2.2%	100.0	
60대 이상	66.7%	16.7%	16.7%	0.0%	100.0	
전체	56.1%	25.9%	12.6%	5.4%	100.0	

***: p<.001

3) 전공과 신뢰도 높은 기관

전공과 신뢰도 기관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학, 보육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기타전공은 국공립 유치원이 각각 54.4%, 38.5%, 42.2%, 49.1%,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교사교육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V-106> 전공과 신뢰도 높은 기관 분석 (단위: %)

전공	신뢰도						χ ²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기타	합계	
유아교육학	54.4%	31.2%	9.2%	4.0%	1.1%	100.0	145.545*** (df=32)
보육학	38.5%	7.7%	23.1%	23.1%	7.7%	100.0	
아동학	42.2%	11.1%	37.8%	8.9%	0.0%	100.0	
보육교사교육원	34.4%	6.3%	37.5%	21.9%	0.0%	100.0	
사회복지학	49.1%	9.4%	35.8%	5.7%	0.0%	100.0	
기타	54.5%	4.5%	27.3%	9.1%	4.5%		
전체	51.6%	25.3%	16.3%	5.7%	1.1%	100.0	

***: p<.001

4) 경력과 신뢰도 높은 기관

경력과 신뢰도 기관을 분석한 결과,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없음은 국공립유치원이 각각 50.3%, 43.8%, 55.3%, 46.2%, 60.8%,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07> 경력과 신뢰도 높은 기관 분석 (단위: %)

경력	신뢰도						χ ²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기타	합계	
5년 미만	50.3%	37.4%	8.6%	3.2%	.5%	100.0	60.613*** (df=20)
5년 이상~10년 미만	43.8%	30.2%	17.8%	8.3%	0.0%	100.0	
10년이상~15년미만	55.3%	16.7%	14.0%	11.4%	2.6%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46.2%	20.0%	23.1%	7.7%	3.1%	100.0	
20년 이상	60.8%	15.4%	20.3%	2.1%	1.4%	100.0	
없음	60.9%	21.7%	13.0%	4.3%	0.0%		
전체	51.9%	25.6%	15.5%	5.9%	1.1%	100.0	

***: p<.001

5) 근무와 신뢰도 높은 기관

근무와 신뢰도 기관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취업(학부모), 전업주부(학부모)는 각각 94.7%, 51.7%, 48.6%,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학부모)도 국공립어린이집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대적 차이를 보였다.

<표 IV-108> 근무와 신뢰도 높은 기관 분석 (단위: %)

근무	신뢰도						χ ²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기타	합계	
국공립 유치원	94.7%	2.3%	3.0%	0.0%	0.0%	100.0	611.672*** (df=24)
사립 유치원	38.7%	59.7%	1.2%	.4%	0.0%	100.0	
국공립 어린이집	23.3%	1.2%	73.3%	0.0%	2.3%	100.0	
사립 어린이집	51.7%	6.3%	17.2%	21.3%	3.4%	100.0	
취업(학부모)	48.6%	25.7%	17.1%	8.6%	0.0%	100.0	
자영업(학부모)	33.3%	16.7%	50.0%	0.0%	0.0%		
전업주부(학부모)	62.0%	24.0%	12.0%	2.0%	0.0%	100.0	
전체	52.1%	25.5%	15.6%	5.7%	1.1%		

***: p<.001

2. 질적 연구를 활용한 현장 전문가의 유보통합 의견 분석

가. 【유보통합 총론】유보통합의 본질적 의미와 저항

1) 평생교육의 수직적 통합원리 구현: '교육 기본 평등권'보장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인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출생에서부터 생애 설계를 위한 수직적 통합원리라도 맥을 같이한다. 일부의 어린이집과 일부의 유치원이 설령 반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지향점은 바로 유보통합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은 출생에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한 라인을 타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의 교육에 대한 평등권이나,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라인을 밟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

대한민국 아이들 똑같잖아요. 그 기관에 따라서, 그 교사에 따라서 차등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G)

2) 유보통합의 저항과 어려움: '생존'두려움, '밀실야합'오해

유보통합과정은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설립 인가조건의 차이, 교사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이윤 감소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능의 차이에 대한 상반된 인식의 반영, 운영의 자율성을 위협받는 데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보육교사의 유아교사 진입으로 인한 교사 질 하락에 대한 우려도 주요한 이유이다. 또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밀실 야합'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은 통합을 반대하지만,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은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회계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과 인가조건, 교사질이 크게 다르고, 교육과정 부분이 어느 정도 질 관리를 위해 시스템이 발전 되어서 왔는데, 사립이라고 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같이 통합을 시키고, 국공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같이 합류가 된다면 저희들을 아예 내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국공립끼리만 통합. 그거는 상관없어요.((J)

이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밀실야합'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립에 몇 분들을 데리고, 핵심 인력들을 데리고 연구를 하고 몰래 추진을 해왔잖아요. (N)

유보통합이 된다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가 그대로 들어와서, 재무회계와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상당히 방해받지 않을까 (G)

유보통합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한편으론 나름 유아교육을 위해 애 썼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한 감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 후 시설 기준 변경으로 인한 사익 감소에 대한 두려움도 내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0-5세 통합을 했을 때, 시설기준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원에서 피해 받는 게 엄청나요. 사립은 땅사고 건물 짓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개인 재산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공약 따라서 무조건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J)

사립은 나라가 어려울 때, 설립인가 다 내주고, 개인재산 털어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 하라 해놓고, 지금 내치는 거잖아요. (N)

열악한 유치원도 유치원이라고 어린이집과 분리가 되어있지만, 어린이집도 시설 좋고 우수한 데가 많아졌습니다. 통합되면 열악한 유치원은 잘 안되겠죠.(E)

유치원이 재무회계는 어린이집에 따를 거고,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에 따를거고, 교육과정은 유치원에 따를거고 이런 몇 가지 통합안이 주어져면서 유치원이 '이게 뭔데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내 운영권은 박탈당하고 어린이집처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벌써 부담이.(H)

나. 【행정통합】관리(행정, 평가)의 일원화

1) 관리 부처의 일원화 : 따로국밥이 아닌 '교육부'로의 통합

관리부처의 일원화를 원하는 것은 그에 따른 혜택과 손해가 공정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 교육부로의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가 통합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서로 '따로국밥'이란 말입니다. (E)

민중사회에서 어떤 아이는 교육부에 속해 있다고 혜택을 누리는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조차도 누릴 수 없는 차별화된 시스템 자체가 문제죠. (I)

부처통합이 되면 적어도 유치원에 가는 혜택들을 어린이집에게도 그런 혜택들로 되어서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G)

보건복지부는 교육보다는 다른 행정이 우선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학부모들에게 언제는 무상보육 했다가, 또 그걸 뒤집어서 80%만 주겠다 하는데 이걸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국민이 신뢰를 못하죠. (S)

2) 평가 체제의 통합: '인증이 아닌 장학으로'

각 기관은 평가제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고 유치원은 장학 중심으로 쉬운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된 인식은 유치원 관리자들도 처음에 보육기관은 신고제로 쉽게 진입했으니 평가인증이라는 절차를 힘들게 받아야 우리가 처음 어렵게 진입한 것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복잡한 매뉴얼과 서류 위주의 평가인증은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을 해치는 비교육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도·점검은 아주 잘하지만, 장학은 못해요. 유치원은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라 하잖아요.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준비과정이 장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

교사들이 실제로 어린이집 관련 서류들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무리인 상태거든요. 서류 때문에 교육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H)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 너무 어렵다고 하거든요. 매뉴얼 자체가 두루뭉술한 유치원하고, 매뉴얼 자체가 명확한 어린이집하고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3명의 관찰자가 와서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체크를 다 하는 거죠. 유치원은 그렇게 안해요. (I)

어린이집은 신고제였잖아요. 그니까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와 가지고 평가 인증제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유치원에 만약에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 받을 거예요 아마. (J)

다. 【인적통합】교사 질과 처우의 균일화

1) 교사 질에 대한 상반된 관점: '신분 업그레이드', '선민의식'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취득은 학과제로 운영된다. 2년제, 3년제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유치원교사 자격을 얻는다. 2년제는 유치원 정교사 3급 자격을, 3년제와 4년제를 졸업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3년제와 4년제에 따라 각각 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의 유치원 관계자들은 이런 유치원교사 자격의 취득 과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의 취득 과정이 간소하여 유아를 교육시키기에 질적으로 미흡(장영인, 2014)하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보육교사의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요건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유아교육학과의 커리큘럼에 보육과정은 없으니 나중에 보육교사로도 취업이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커리큘럼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이는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아이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유아교육에 보육은 없죠. 유치원 정교사를 위한 과목은 있는데, 발달에 대한 공부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맞춤형으로 영아에 대한, 0-2세에 대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은 없죠. 그니까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지고 영아들 수업을 하는 거죠.(E)

실제로 유치원에 막 갓 전문대 졸업하고 개네들은 4년제 나온 애들도 잘 없잖아, 전문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천지기별도 모르는 알라가 알라를 키우는 건데,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G)

현장에서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4년제 나와서 이론은 가득한데 현장 와서 병 찌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현장하고 갭이 너무 커요. (F)

현재 유아교육에서의 커리큘럼의 연계와 통합 후에도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보육학과 교수들의 대부분이 유아교육학과 출신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유치원 관리자들은 학력에 따른 선민의식(?)이 뿌리 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보육교사가 4년제 비율이 높고, 유치원 교사는 3년제가 더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은 영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유치원교육과정을 갖고 영아아이들 활동을 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돼요. 영아기는 주 양육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치원 교육이 선행되고 영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있는 전공자가 있냐는 거죠. 유치원, 아동보육학과 교수님들은, 영아전공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유아교육학과 출신들이예요. 아이들의 평등권 안에 정말 영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수님을 제대로 초빙했으면 좋겠어요.(I)

알고 보니 유치원 교사들 전부 전문대 출신이야. 우리는 다 4년제 이상이에요. 어린이집 비율적으로 볼 때 4년제 이상인 대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은 고졸자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보육을 하시는 곳이고, 유치원은 적어도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진이 있다는, 유보통합설명회에 그렇게 표가 딱 뜨더라고요.(G)

자기 '신분이 업그레이트' 되거든요. 그니까 인식이, 밖에서 보는 거라든지, 앞으로 자기네들 뭔가 기준들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우리는 저하되는 것 싫거든요. 교육과정도 다르고, 교사 질도 다르고, 이거를 다시 20년전으로 역행하기 싫어요.(J)

모든 유아교육과 3년이나 4년 자격증을 따고 나와 가지고, 어린이집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N)

보육교육원출신은 4년이라고는 하지만, 고졸로 같이 봐줘야죠. 대학은 나왔지만 전공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원장님이 유치원 하나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L)

2) 교사 양성기관 및 교육과정 개선: '사이버 OUT, 실습강화'

통합 후에 보육교사들만 보수양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교사들도 통합을 대비해 보육과정의 필수학점 과목(보육심리학, 태생학, 산파학 등)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영아를 잘 모르면서도 실습 1달만 하면

나오는 자격증이 바로 보육교사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통합의 방향은 결국 4년제 학과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나타났다. 실습도 2~3개월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 후 영유아 연계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교사는 통계적으로 보면 미혼자가 많아서 영아보육 실습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보육교사는 통계적으로 기혼자가 많으므로 영아특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년제 이상은 돼야하지 않을까요. 태생학도,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유아교사는 사람의 인성자체와 본인의 인성도 준비되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해요. (H)

학력도 중요하지만 면접을 본다든지, 시연을 본다든지 하는, 아이들하고 발달에 맞춰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 교육적인 마인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과정에 추가되는 것이 필요해요.(F)

지금 한 달 정도 실습기간을 하고 있는데, 실습이라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 보다는, 학기마다 인턴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실습이 2개월 정도 되면 충분.(N)

실습 기간을 주장하는 게 3개월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1개월 정도는 너무 짧다는 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아이 제대로 알려고 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 시설에서 3개월 정도는 실습을 해야 제대로 된 흐름을 익히는 거죠.(I)

사실 0세가 없는 5세가 있을 수 없거든요. 0세부터 전반적 발달을 다 알아야지, 아이가 갑자기 5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 되어야 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도 심리, 태생학, 산파학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지, 0세의 어떤 보호를 받아서 어떻게 5세가 되는지, 교육부터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해요.(G)

사이버 학점운영제로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는 제도는 폐지하자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조차 공공연히 거론되어온 바로 교사의 질을 확보하기에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화 되어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이버는 퇴출시키고 방통대는 존속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교육원은 현재의 선발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직무 승급교육으로만 전환하는 역할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합 후 자격개편 운영 체제는 ① 보수 양성교육 ② 국가고시 ③ 유아교육과로 편입의 3가지 방식이 제안되었다.

사이버는 아니죠. 무슨 온라인으로, 틀어놓고 있는 거, 그건 안돼요. 기능적인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직접 듣고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방법 모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니까 사이버에서 애 주패고 말이지,

작년에 때린 게 사이버 출신이잖아요. (G)

방통대는 필요해요. 왜냐면 전문대 나온 사람들이 편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학부를 전공을 했다가 유아교육이 하고 싶다 그 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하신 분들이 현장에 나오게 되면 특수교육만 하다보니까 영유아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용.(E)

보육교사교육원 1년짜리는 3급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대부분 4년제 나오고 새롭게 재출발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보육교사교육원은 존재해주어야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새로 일할 수 있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G)

보육교사교육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출신들이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대학의 다른 학부를 전공을 하고 다른 거를 했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80%예요. (I)

유치원 교사를 받은 사람한테는 영아교육을 재이수시켜 보완하고, 영아교육을 받은 사람은 유아교육을 보완해서 1~3년 미만의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맞추어서 자격을 같은 동급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 학교에 배출되는 학생들로부터는 같은 자격으로 개편된 교육과정을 해 나오면 별 문제는 없다.(H)

전공을 해서도 국가고시를 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육하는 사람 마인드도 다르고, 일단은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M)

전공을 하지 않고 하는 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위 따라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년제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뭐 교대가 2년에서 하면 그걸 다 편입을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편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대학교나 국가에서 그런 보수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L)

3) 교원 처우 균일화: 급여, 복지를 유치원 수준으로 통합

통합을 통해 급여 체계와 테이블 차이로 인한 상실감을 상쇄하고 수당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은 학력 구분 없이 1호봉으로 시작하는 데 반해, 유치원은 학력에 따라 호봉구분이 있다는 차이를 보여 상대적 박탈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통합 후 보육교사의 신분 업그레이드에 대해 물질적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본다는 입장을 견지함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가 원하는 급여와 처우는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수가 병설유치원 수준, 일반 민간 유치원 수준이 아니고, 학교 유치원 수준으로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교사들도 좋겠고, 급여체계는 거기에 따라서 경력, 학력,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면 좋겠고, 급수에 따라서. (I)

보육교사는 이제 1호봉이 우리는 무조건 보면 제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저기 전문대 출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똑같이 1호봉으로 시작해요. 그게 좀 불합리해. 유치원이 체계적인 느낌이에요. (G)

보육교사급어가 오른다 해서 자기들이 손해볼 것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육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베이스가 같이 되게 만들어가는 게 선진화되어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거죠. (E)

국공립 유치원의 급여테이블을 참고로 하나 유능한 교사를 끌어오기 위해 사립 유치원은 정해진 급여테이블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높은 급여체제로 처음에는 급여가 높으나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립 관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3년차부터는 다른 사립 유치원을 가거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 유치원에선 월급 많이 받는 게 오래가지 못해요. 나와야 해요. 3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원감이 안 되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철새처럼 유치원교사들은 2년 3년마다 유치원을 옮겨, 유치원을 옮기고 결국에는 6년, 7년차쯤 되면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오는 게 자기들의 가장 큰, 이상적인 로망인거예요. (G)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있는 사람들을 써요. 근데 유치원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유치원으로 가고,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있는 사람들 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치원에서 2년, 3년 경력자들이 어린이집을 들어와요. (I)

사립유치원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또 원장들 몇 분끼리 통하는 호봉 기준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마다 다 다른데, 수당의 기준들도, 항목들이 다 달라요.(J)

어린이집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업무강도는 더 가중되나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나 복지는 유치원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국공립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 후에는 근무환경과 복지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은 유치원교사들보다 어린이집교사들이 더 많이 해요. 유치원교사,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6시간 하고 오후에 방과 후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F)

사립은 애들도 안정이 되니까 좋고, 교사들도 편하게 아이들 볼 수 있고. 그리고

복리후생이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출산하고 육아휴직이잖아요. 그게 보장되니까 교사들이 들어오면 잘 안나가요. (G)

라.【재정·시설통합】재무회계 및 시설 기준 일원화

1) 유치원 재무회계의 불투명성: '성역(?)' 해체하기

사립 유치원의 재무 불투명성의 문제는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카드 수수료도 또 하나의 '추가 비용'발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유아(만3-5세)는 유치원만의 성역(?)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통합 후 유치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 유치원은 무조건 현금만 받아요. 카드도 안 돼. 그래서 얼마나 탈세하기 좋아요. 참 그리고 5만원권 생긴 이후로 유치원 원장들이 제일 좋아한대요.(G)

유치원은 굉장히 많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솔직히 좀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는 재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거든요. (I)

유치원은 아이들의 보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열려있고, 아직은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만큼 제재를 받는 부분들이 좀 적고(E)

유치원은 그들만의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개수도 많지도 않고 본인들이 뚝뚝 뭉칠 수 있는 재원들도 충분히 마련이 되고, 유치원측은 나름 지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운영권에 대한 이런 운영권에 대한 자율권도 갖고 있고.(H)

2)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불일치: 사회복지시설 기준과의 부조화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이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를 사용함으로써 재무회계가 부조화 되고 사립 기관 고유의 운영의 자율성에 훼손을 가져온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통합 후 모든 시설을 국·공립화 할 수 없다면 사보육기관의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과 소통, 협의가 부족하여 반발을 사고 있는 맞춤형육정책은 오히려 유보통합을 해야 한다는 당위의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소속인데다가 재무회계가 오래전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따라다 보니까 재무회계 자체가 안 맞거든요. (H)

재무회계를 모든 유보통합 기관이 맞추라는 것 자체는 안 맞아요. 사보육을 국가가 100%를 다 국·공립화를 시킬 수 없다면, 사보육을 인정 하고 가야지. (N)

운영시간하고 아이들의 이용시간, 교사들의 근무시간, 실제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맞춤보육을 어떻게 적용시켰나요? 영유아보육법에도 운영시간, 이용시간, 근무시간이 같으라는 건 없어요. 같을라하면 비용이 전체적으로 높아져요. (E)

3) 재무일원화와 재정부담: 기본(국가), 방과 후(수익자) 분리부담

재무회계의 반발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립 기관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의 통합은 선 통합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재무회계가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만 통합이 되면 선 통합 후 회계는 같이 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국공립은 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거를 이행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I)

재무회계 규칙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공개하거든요. 정보공시 다하고 학부모들에게 분기별로 특별활동비라든지, 기타경비도 다 보고 해요. 부모들한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보고 하고, 아예 포털에 공지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도 처음에는 그래도 하다보면 이게 훨씬 쉽다고 느낄 거예요.(E)

재정부담은 무리하게 국가가 모든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보편복지 보다는 소득 등의 기준으로 선별복지를 하고, 기본적인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방과 후 특성화 수업 등의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의 방향은 국립은 국립끼리, 사립은 사립끼리 통합이 나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도 아이와 함께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이 맡겨놓고 그냥 브런치 하러 가버리고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키워주겠지, 우리들은 놀아도 돼', 이런 식의 지금 잘못되어진 복지 때문에. (E)

국가에서는 기본교육과정, 누리과정은 해주고, 방과 후는 수익자 부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아이만 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방과 후 과정까지도 국가에서 해주니까, 아이를 볼 수 있는 주부들도 기관에 다 맡기지 않습니까. 부모의 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인성이 바른 아이로 자라겠습니까? (L)

국공립은 국공립끼리, 그 다음은 민간은 민간끼리, 그 다음에 가정은 예외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법인이에요. 법인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재산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 형태가 사립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같은 유형끼리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I)

4) 통합 위한 시설 기준 재설정: 연령특성을 감안한 시설기준 확정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어린이집 시설은 과거에 신고제 방식에 의해 설립되었기에 유치원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공간 확대, 안전 문제 등에서 논란(유희정외, 2008)의 소지를 안고 있다. 예로 가정식 보육시설로서의 어린이집과 까다로운 기준요건을 충족하여 설립인가 된 유치원의 시설은 격차가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균질한 누리과정 구현 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유치원에 준하는 유아교육기관으로 통합하려면 시설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이 되는 곳은 유치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영아학교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봐야죠. 부처는 통합하되, 이원화를 시설이라든지 연령에 맞춰서 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L)

유아교육의 첫 시발점은 사학에서 됐는데, 전부 다 흡수할 순 없잖아요. 때문에 앞으로 국공립을 하되, 지금 있는 것들은 그대로 존재 시키면서, 시설 부분을 국공립으로 다 전환하기 어렵다면, 새로 설립은 국공립 우선으로 하자. (I)

마. 【교육과정 분석】누리과정 본질적 의미, 초등1학년 교육과정 연계

1) 누리과정의 균질한 구현: '출발점 평등권'

현재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표준화된 과정으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균질하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게 된다. 현재의 누리과정은 국공립인 단설,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 적용이 균질할 수 있는지 그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을 준수하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총론을 준수하되 나머지 자율적인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어린이집의 특색 있는 운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부는 누리과정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국가수준의 동일한 누리과정 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습은 이뤄지지 않는 과정이 특징이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규제에 따라 학습은 최소화 하고 누리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서 유치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한글 학습지, 영어 사교육 등의 비중이 유치원보다 높게 차지하고 있어 학습활동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을 최소화하는 누리과정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상충하고 있다. 관할인 보건복지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누리과정외의 학습에 대한 규제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만 규제를 받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육부의 직접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어린이집의 특수성에 기대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 구현이 균질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합 누리과정을 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어서 많이 흡수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잘 안보이니까. (F)

근데 실제 교재를 보면 이게 달라요. 실정에 맞춰서 양쪽을 나누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차별화가 시작된 거예요. 책부터가. (E)

오히려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G)

누리과정에서 낮잠은 기관마다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낮잠을 자는 것도 잘 수 있는 것도 누리과정 구현을 위한 교육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다는 아니지만 유치원 가면 못자고 어린이집 가면 자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또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지역은 누리과정의 균일한 구현을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유치원에선 낮잠을 못자서 힘들어 해요. 우리는 6살까지는 자야 되거든요. 기준 매뉴얼에.(G)

시골에서는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교사가 안 가니까요. (M)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오히려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은 샘플 일뿐 적용을 잘 못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으로 개성이나 자율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실제로 질이

하향평준화 된 부분도 있고, 교육과정이 천편일률적인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지역적 특성과, 원의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 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H)

누리과정 안에서 주제는 하나지만 그 주제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무궁무진해요. 그거는 그 시설에서 그 어린이집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I)

누리과정의 균질한 구현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병설보다는 단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설의 조건은 병설을 통폐합하는 것이고, 신설이 어렵다면 구도심 폐교나 도심 근거리의 폐교활용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은 70%이상이 공립입니다. 병설은 초등학교에 더부살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도, 아이들 맞는 높낮이 의자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밥먹으러 20분 빨리 가는데, 사실 20분 동안 밥 못 먹죠.(L)

도심에서 조금 가까워야 되지, 너무 멀리 있는 폐교는.. 조금은 그래도, 교사들이 안전이 안 되고 사고가 나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G)

2) 방과 후 특성화 수업에 대한 답변: '학습 보다는 놀이'

연구 결과, 학부모들의 선행학습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상한선의 고려와 반면에 자율성도 고려해야 함이 드러났다. 부모 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함이 나타났다. 가정교육을 기관에 다 맡기는 것은 어쩌면 직무유기일 수 있다. 학부모에 민감한 정부나 정치권에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의 요구에 모든 사회가 맞춰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아이의 요구가 최우선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학습지 하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좀 해라고 갖고 보내는 어머님도 계세요. 영어 단어 좀, 오늘 학원가야 하는데 영어 숙제를 못했다고 영어단어 좀 어린이집에 가서 하라고.(F)

경남결정고시금액이 정해져있거든요. 한도수납액이. 체육이나 영어 강사비는 어린이집 예산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2만원밖에 안 받아요. (I)

자율형이라든지, 좀 특성을 살려서 특성화된 이런 부분들이 한다는 경우 사실 많이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상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인

부분에 맡겨놔도 좋지 않나.(H)

지역별로 서울교육비, 지방, 시골도 다를 거잖아요. 대학에 똑같은 강사가 어떤 과목을, 시간강사들 있잖아요. 과목을 이 대학 가는데 예를 들어서 3만원 준다, 저 대학가면 4만원 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사람이.(J)

가정에서 아이하고 연계역할이 너무 교육기관으로 다 떠넘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개인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개별적인 이런 문제를 학교가 전부를 완전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K)

3) 누리과정과 의무교육화: 상급진학의 두려움

누리과정과 의무교육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취학 전 초등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어느 수준까지 학습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남녀의 성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과정설계와 교수학습 문제도 지적되었다. 유치과정은 놀이중심의 과정, 통합중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좀 더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7세 과정과 초등 1학년 과정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 편성에 있어서 당연한 거고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H)

1학년 통합교과를 살펴보면, 문자가 꽤 많습니다. 한글 해득력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잘못 된 거 예요. (A)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교육되어야 됩니다. 누리과정하고 연계가 되어야 해요.(C)

한 두달만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보고는 놀이를 통해서 하라면서요, (E)

언어적으로 뛰어난 여자애들은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시청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G)

만 5세(7세) 의무교육은 찬성과 반대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선행학습이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는 만 5세가 공교육으로 편입됨으로써 수입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무교육을 만 5세만 하는 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모든 연령을 공교육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점진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유초 통합에 반대죠. 애들은 발달 수준이란 게 있잖아요. 만5세 의무교육도 반대예요. 만약에 학교로 편입하면 우리나라는 선행학습 좋아하잖아요. 또 이거도 학교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애들을 달달달 볶을 거예요.(J)

유보통합이 되면 0세에서 7세 아이까지가 고루 나누어지는 것을 받으니까, 7세만의 무상은 또 나뉘지는 것이라고 생각이니 굳이 7세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H)

7세를 아예 국가의무교육으로 흡수해서, 초등학교로 아예 넣어버리는 거죠.(I)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가. 관리(행정, 평가, 재정)의 일원화

첫째, 통합 후 관리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평생교육의 수직적 통합 관점에서 아동의 교육평등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보건복지부 보다는 교육부가 적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영유아기의 발달 및 교육을 전 생애 발달과 교육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유아기관의 학제화 및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지성애 외, 2015)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관리부처의 교육부로의 통합은 다른 선행 연구(이일주, 1999; 이덕난, 2008; 지성애 외, 2015)와도 일치했다.

둘째, 평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방안을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는 장학의 유치원의 방식과 인증의 어린이집 방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치원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치원의 교육과정 중심 평가에 안전관리, 건강은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설치기준에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골라지는 편이고, 평가인증이 아니라도 식약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진단을 다양한 각도로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평가를 기준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시 재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새로운 평가제도

재정지원을 차등화(류민정, 2014)하는 방안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재정 부담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방과 후 특별과정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유보통합 모델연구(지성애 외, 2015)와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용의 국가 부담으로 재무 회계 및 운영의 투명화 제고를 위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통합 후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급한다면, 사립은 모두 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결과 판단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유보통합은 완전통합을 지향하되 부분별로 단계별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실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 교사자격, 평가 등을 통합하고, 법률, 재무회계, 시설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나왔듯이 사립기관은 재무회계와 운영의 자율성 침해가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의 진행 방향은 국공립은 국공립끼리, 사립은 사립끼리 묶고, 가정 어린이집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립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연령의 이원화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을 보인다. 우선 유아와 영아를 연령별로 분리(이일주, 1999)하여 유아는 국가가 관리하고 가정 어린이집 등의 영아시설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시설은 기관별로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통합이 필요하다. 시설 통합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재원확보 등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의 마련이 촉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순차적인 시설자격 요건을 강화 또는 조정(유희정 외, 2008)할 필요가 있는데 유치원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순차적으로 시설 요건을 갖추도록 기회를 열어줄 필요는 있으나 보육성격이 강한 0세부터 2세 영아전담 시설로 남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0세부터 5세까지 모두 통합하는 것은 실효성과 아동발달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0세부터 2세까지는 현행의 보육시스템을 유지토록하고 유보통합은 3세부터 부분통합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 교사 질과 처우의 균일화

첫째, 사이버과정은 폐지하고 방송통신대는 유지하며, 보육교사교육원은 승급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교사 자격증은 보수양성교육후 시험, 또는 국가고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보통합 모델 연구(지성애 외,

2015)와는 내용이 맥락적으로 같음을 확인했다. 보육교사교육원의 역할전환 모색과 국가고시 필요성 제기(이미정, 2013)도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확인했다. 반면에 양성기관으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는 부적절하며,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은 교사연수기관으로,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조교사 양성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김은영 외, 2016)는 연구와는 다소 내용적인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일원화된 통합 자격이 필요하고, 과정 학과제로 통일하고 이에 따른 자격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통합된 교사자격증이 필요하다(김수향 외, 2014; 이미정, 2013)는 연구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격제도는 같아야 한다(김은영 외, 2016)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박은혜·장민영(2014)의 8개국 비교연구를 보면, 유아교육과 보육 교사자격을 완전히 통합한 나라는 노르웨이 한 곳 뿐이다.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핀란드는 부처통합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만큼 자격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격개편과 통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원 처우는 유치원 수준으로 균일하게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경력·학력에 따른 차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수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통합 자격을 적용하고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 체계를 적용(지성애 외, 2015)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원격대학(사이버),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 등을 통한 자격은 ‘통합교사’ 자격체계의 하위체계로 새로이 구성하여, 자격에 따라 처우와 역할에 분명한 차등을 두자(이미정, 2013)는 연구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이들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교원의 신분적 안정화 정책도 공교육과 공보육 관점을 기반으로 심도 깊은 정책적 연계 고민이 필요하다.

다. 누리과정과 초등1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

첫째, 누리과정의 균질한 구현은 결국 출발점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누리과정으로 결과적·보상적 평등이 필요하다. 다만,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노력은 계속되어 아이들의 ‘행복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과 후 특성화 수업은 학습이 아니라 놀이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침과 상한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과 후 특성화 수업에 대한 학습의 지양은 한편으론 누리과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따라서

방과 후 특성화 수업은 향후 통합이 된다면 관리부처의 학습지양 정책을 기반으로 한 지침을 규정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 상한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무 교육화 즉, 공교육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 누리과정이 존재하기 이전이라면 취학 전 한글교육은 가정에서 선택할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 누리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중 5세과정은 적어도 취학 준비단계로서 초등 1학년 교육과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누리과정을 이수한 입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취학 이전의 5세 누리과정은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할 것 없이 균질하게 이루어져 학교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학력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만5세는 ‘pre-school⁹⁾’ 형태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 흡수로 추가되는 예산은 ‘소비세’ 인상(홍금자 외, 2015)의 방법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 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상남도 거제 송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거제 송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농촌형 0~2세 영아전담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연계사업으로 학교 부지 내에 농촌형 영아 전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원아를 모집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학교 안의 장소만 빌려줬을 뿐 진정한 유보통합이라기 보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의 혼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유보통합의 실제적 접목 가능성의 효과성과 만족도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유보통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교육청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동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권미경·이진화·김정민(2014)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6개년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에 따르면 집중협력지역을 선정하여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모델을 운영했으나 기관 운영 협력에서 미흡하며 유치원의 협력 의사는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

9) 핀란드 사례를 세종시교육청에서 긍정 검토(세종시교육청, 2016.09.13.보도자료)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통합을 위한 방향성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교육 운영 및 기획력에서 전문성 발휘가 용이한 교육청이 주도로 하여 협동 모델을 설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개발된 ‘협력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은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영·유아의 교육과 행복을 위한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수요자인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일부의 시각과 비판에 대해 정부와 학계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담론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현구·이순형(2014). 한국과 일본 영유아 보육 제도 비교연구. 아시아리뷰, Vol. 4. No.1. pp.139-167.
- 고민경·권건일(2007).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안 고찰.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Vol.11. No.3. pp.49-79.
- 권미경·이진화·김정민(2014).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VI). 육아정책연구소.
- 김수향·임경심·홍혜경(2014). 유보통합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간 인식 비교. 육아정책연구. Vol.4. No.3. pp. 379-400.
- 김세근(2006). 일본의 최근 보육현황을 통해서 본 유보일원화 문제의 동향과 전망. 韓國日本學會. 日本學報, Vol.69, pp.437-449.
- 김은설(2011).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육아정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포럼, Vol. 220. pp.21-25.
- 조혜주·이보라(2011).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 통합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6).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비한 교사자격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3. No.1. pp.141-160.
- 김현철(2007). 표본의 추출과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류민정(2014).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입법과 정책. Vol. 6. No.1. pp.219-252.
- 박은혜·장민영(2014). 통합 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비교. 교육과학연구, Vol. 45. No.1, pp.149-180.
- 박창현·박선영·김영주·윤경옥(2010). 스웨덴의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이 한국 영유아정책에 주는 함의. 유아교육학논집. Vol.14. No.4, pp. 69-90.
- 신동주(2006). 스웨덴의 유아교육제도. 한국유아교육학회. pp.79-93
- 유희정·이미화·장명림·김은설·김은영·송신영(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덕남(2008).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정책의 입법영향평가. 중앙대박사학위 논문.
- 이미정(2013). 통합교사 자격체계 방안의 모색. 한국보육학회지. Vol.13. No.4, pp.387-402.
- 이일주(1999). 한국 유아교육 일원화체제 모형 탐색.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이성한(2014). 일본 유보통합의 흐름과 전망. 한국일본교육학연구.Vol.19. No.1, pp.33-54.
- 이정옥(2015). 단계별 유보통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Vol.35. No.6, 221-240.
- 이혜원(2006). 한일 아동 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2, pp.167-195.
- 장영인(2014). 유보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87, pp.113-142.
- 정선아(2007).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幼兒教育研究, Vol. 27. No.6, pp.101-124.

- 조진일(2014). 초등학교 내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지성애·홍혜경·이정옥·장명림(2015).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델 구축. 육아정책연구. Vol.35. No.5. pp.5-29.
- 홍금자·정효정·이혜영(2015). 일본의 유보일원화 흐름과 「아동·육아 관련 3법」을 통한 한국 보육의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91, pp.91-116.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3.12.03.). 유보통합, 임기 내 완성.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4.02.14.). 유보통합추진단 공식출범.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5.09.02.).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 등 설치 의무화.
- 세종시교육청(2016). 세종시캠퍼스형고교, 핀란드서 미래찾다. (09.13.보도자료)
- 한겨레(2016). 강원도에선 한글선행학습 필요없어요. (2016.10.06. 기사)
- (2016). 시·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및 증가율 현황 (2016.5.19. 기사)

【 부 록 1 】

유아교육·보육통합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유치원용)

<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및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의 협조를 얻어 2016년 교육연구정보원 정책 연구 중의 하나인 ‘유아교육·보육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설문조사는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기간: 2016. 7. 11. ~ 7.20

※ 회신방법: ① 온라인 주소 클릭 후 작성, 제출 또는
② 작성(또는 스캔) 후 파일을 이메일로 회신

※ 설문대상: 해당 유치원 원장님 / 선생님 / 학부모

2016년 7월 11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
정책 연구위원 : 류 영 철

◆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
②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
③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 통합 ④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 통합
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양성 및 자격체제의 통합

- ① 만 0~5세 ② 만 1~5세 ③ 만 2~5세 ④ 만 3~5세 ⑤ 만 4~5세

7. 통합이 된다면 연령별 분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0~2세와 만 3~5세 분리 ② 만 0~1세와 만 2~5세 분리
 ③ 만 0세와 만 1~5세 분리 ④ 연령 분리하지 않고 만 0~5세 통합
 ⑤ 기타()

8. 통합이 된다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기관을 분리한다면, 어떻게 분리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
 ② 만 0~1세 어린이집, 만2~5세 유치원
 ③ 만 0세 어린이집, 만1~5세 유치원 ④ 만 0~5세 유치원
 ⑤ 만 0~5세 어린이집 ⑥ 만 0~5세 통합기관

9. 통합이 된다면 기관의 **가장 적합한 명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학교(만 0~5세) ② 어린이집(만 0~2세)과 유치원(만 3~5세)
 ③ 어린이집(만 0~2세)과 유아학교(만 3~5세)
 ④ 영아학교(만 0~2세)와 유아학교(만 3~5세) ⑤ 기타()

10. 통합이 된다면 **가장 먼저 통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 ②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③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제 통합(프로그램, 운영시간 등)
 ④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통합
 ⑤ 재정지원체계 및 설립유형별 재무회계규칙 통합
 ⑥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방식 통합 ⑦ 기타()

11. 통합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어린이집과 같은 운영체제로 종일제 보육기능을 강화
 ② 현재 유치원과 같은 운영체제로 교육기능을 강화
 ③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
 ④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
 ⑤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 ①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교과목이수제와 학과이수제 병행)
- ②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 ③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 ④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 ⑤ 기타()

17. 통합이 된다면 현행 '보육교사 3급'자격과 담당 직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급담임 배정
- ②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에 따라 2급 자격 취득 가능)
- ③ 자격급수(3급)폐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과 관계없이 2급 자격 취득 불가)
- ④ 3급 자격 폐지,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 연수 등 기능 전환
- ⑤ 보육교사 3급 자격 및 보육교사교육원 폐지

18. 통합이 된다면 교사 처우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까요?(한 가지만 응답)

- ① 교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 ② 교사가 돌보고 가르치는 연령(만 0세~5세)에 따라
- ③ 최종학력(2년제, 3년제, 4년제, 석사, 박사)에 따라
- ④ 경력에 따라 ⑤ 자격종별(1급, 2급 등)에 따라
- ⑥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

19. 통합이 된다면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① 지금의 형태로 유지 ②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
- ③ 부모의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립기관 설립 장려
- ④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형 형태로 설립 장려
- ⑤ 기타()

[참고] '프랜차이즈형 형태'란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을 한 방식으로 설립하는 유형을 뜻함.

25. 영·유아의 국가 의무 교육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약간 필요 ③ 보통 ④ 별로 필요 없음 ⑤ 전혀 필요 없음

26. (필요응답자만) 영·유아의 국가 의무교육의 연령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0~5세 ② 만 1~5세 ③ 만 2~5세 ④ 만 3~5세 ⑤ 만 4~5세

< 기초 사항 >

(해당되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 자격 증 (모두 √)	① 유치원 정교사 2급 ② 유치원 정교사 1급 ③ 보육교사 2급 ④ 보육교사 1급 ⑤ 사회복지사 ⑥ 기타()
3. 학 력 (모두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재학이상 ⑤ 사이버대학 ⑥ 학점인정제 ⑦ 보육교사 교육원졸 ⑧ 기타()
4. 전 공	① 유아교육학 ② 보육학 ③ 아동학 ④ 보육교사교육원 ⑤ 사회복지학 ⑥ 기타()
5. 경 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이상~15년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⑥ 없음
6. 결 혼	① 미혼 ② 기혼 유자녀 ③ 기혼 무자녀
7. 근 무	① 국·공립 유치원 ② 사립 유치원 ③ 국공립 어린이집 ④ 사립 어린이집 ⑤ 취업(학부모) ⑥ 자영업(학부모) ⑦ 전업주부
8. 신 분	① 원장 ② 교사 ③ 학부모
9. 지 역	① 도시 ② 읍면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 록 2 】

유아교육·보육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어린이집용)

<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및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의 협조를 얻어 2016년 교육연구정보원 정책 연구 중의 하나인 ‘유아교육·보육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설문조사는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기간: 2016. 7. 11. ~ 7.20

※ 회신방법: ① 온라인 주소 클릭 후 작성, 제출 또는
② 작성(또는 스캔) 후 파일을 이메일로 회신

※ 설문대상: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 / 선생님 / 학부모

2016년 7월 11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
정책 연구위원 : 류 영 철

◆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할된 소관 중앙부처의 통합
- ②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서비스 기능 통합
- ③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 통합
- ④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 통합
- 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양성 및 자격체제의 통합
- ⑥ 기타()

7. 통합이 된다면 연령별 분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0~2세와 만 3~5세 분리 ② 만 0~1세와 만 2~5세 분리
- ③ 만 0세와 만 1~5세 분리
- ④ 연령 분리하지 않고 만 0~5세 통합 ⑤ 기타()

8. 통합이 된다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기관을 분리한다면, 어떻게 분리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
- ② 만 0~1세 어린이집, 만2~5세 유치원
- ③ 만 0세 어린이집, 만1~5세 유치원 ④ 만 0~5세 유치원
- ⑤ 만 0~5세 어린이집
- ⑥ 만 0~5세 통합기관 ⑦ 기타()

9. 통합이 된다면 기관의 가장 적합한 명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학교(만 0~5세) ② 어린이집(만 0~2세)과 유치원(만 3~5세)
- ③ 어린이집(만 0~2세)과 유아학교(만 3~5세)
- ④ 영아학교(만 0~2세)와 유아학교(만 3~5세) ⑤ 기타()

10. 통합이 된다면 가장 먼저 통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관 중앙부처의 일원화
- ②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 ③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체제 통합(프로그램, 운영시간 등)
- ④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통합
- ⑤ 재정지원체계 및 설립유형별 재무회계규칙 통합
- ⑥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방식 통합 ⑦ 기타()

11. 통합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어린이집과 같은 운영체제로 종일제 보육기능을 강화
- ② 현재 유치원과 같은 운영체제로 교육기능을 강화
- ③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적용
- ④ 현행 두 소관부처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
- ⑤ 어린이집 또는 영아학교(만 0~2세)는 보건복지부,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만 3~5세)는 교육부로 통합

⑥ 기타()

12. 통합이 된다면 교사는 어떤 자격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유치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 ②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통합
- ③ 새로운 형태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 마련
- ④ 영아교사(만 0~2세)와 유아교사(만 3~5세)자격으로 분리
- ⑤ 기타()

13. 통합이 된다면 교사자격을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 ②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
- ③ 근무시간에 따라 정규과정(반일반)교사,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구분
- ④ 구분할 필요가 없음 ⑤ 기타()

14. 통합이 된다면 통합교사의 자격체계 및 직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가지만 응답)

- ① 정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과 같음)
- ② 보조교사(3급)-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원장
- ③ 정교사 수습기간(3급,1년)-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
- ④ 정교사 수습기간(3급,1년)-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 -원장
- ⑤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장(현행 3급 폐지)
- ⑥ 정교사(2급)-정교사(1급)-원감 또는 선임 - 원장(현행 3급 폐지)
- ⑦ 기타 ()

15. 통합이 된다면 교사자격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의 형태로 유지
- ②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취득
- ③ 대학교 학력(2년제,3년제,4년제)에 따라서 자격을 급수로 나눔
- ④ 양성교육기관의 종류(학점은행제,보육교사교육원,원격대학,일반대학)에 따른 자격을 급수로 나눔
- ⑤ 기타()

16. 통합이 된다면 교사는 어떤 기관에서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교과목이수제와 학과이수제 병행)
- ②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 ③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 ④ 4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교과목이수제 폐지, 학과이수제로만 양성)
- ⑤ 기타()

17. 통합이 된다면 현행 '보육교사 3급'자격과 담당 직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급담임 배정
- ②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에 따라 2급자격 취득 가능)
- ③ 자격 급수(3급)폐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과 관계없이 2급자격 취득 불가)
- ④ 3급 자격 폐지,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 연수 등 기능 전환
- ⑤ 보육교사 3급 자격 및 보육교사교육원 폐지
- ⑥ 기타()

18. 통합이 된다면 교사 채우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까요?

- ① 교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 ② 교사가 돌보고 가르치는 연령(만 0세~5세)에 따라
- ③ 최종학력(2년제, 3년제, 4년제, 석사, 박사)에 따라
- ④ 경력에 따라 ⑤ 자격종별(1급, 2급 등)에 따라
- ⑥ 자격, 학력,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현행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같이)
- ⑦ 기타()

19. 통합이 된다면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① 지금의 형태로 유지 ②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
- ③ 부모의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립기관 설립 장려
- ④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형 형태로 설립 장려

⑤ 기타()

[참고] ‘프랜차이즈형 형태’란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을 한 방식으로 설립하는 유형을 뜻함.

20. 통합이 된다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기관으로 전환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① 기존 기관은 모두 전환 ② 신청 기관은 모두 전환
- ③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 ④ 시설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
- ⑤ 만 0~2세 영아 담당기관과 만 3~5세 유아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여 전환
- ⑥ 기타()

21. 통합이 된다면 정규적인 교육, 보육시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1일 3~5시간)
- ②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는 종일제
- ③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시간제
- ④ 통합된 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맡김
- ⑤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종일제를, 비 지원시설은 자율에 맡김
- ⑥ 기타()

22. 통합이 된다면 교육·보육비용은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가 전액 부담 ② 학부모가 전액 부담
- ③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과정은 학부모 부담
- ④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차등부담
- ⑤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국가도 일부 부담
- ⑥ 기타()

23. 통합이 된다면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어느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관의 시설 및 설비 지원 ② 교육비 지원 ③ 교재교구 지원
- ④ 인건비 지원
- ⑤ 운영비 지원 ⑥ 교사 연수비 지원 ⑦ 기타()

2016.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 연구 보고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6년 12월 27일 인쇄
2016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황 선 준

기 획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안 태 환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 영 희

연구자

책임 연구자 책임연구원 류 영 철
공동 연구자 책임연구원 전 흥 표

발행기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641-825)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www.gerii.go.kr>
전 화: (055)269-0777
전 송: (055)269-0789

인 쇄

그라지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http://ebook-lib.gerii.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
아이좋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